

대한민국과 유엔개발계획(UNDP)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목 차

발 간 사	4
서 론	6
제1장 UN과 대한민국	11
1. 1. 국가건설(state-building)과 UN (1945-1949)	12
1. 2. 한국전쟁과 재건 (1950-1960)	13
1. 3. 경제-사회 원조와 UNDP의 탄생	16
제2장 UNDP의 국가사업 개요	18
2. 1. 제 1차 국가사업 (1972-1976)	19
2. 2. 제 2차 국가사업 (1977-1981)	20
2. 3. 제3차 국가사업 (1982-1986)	20
2. 4. 제4차 국가사업 (1987-1991)	21
2. 5. 제5차 국가사업 (1992-1996)	22
2. 6. 제6차 국가사업 (CCF, 1997-2004)	23
2. 7. 제7차 국가사업 (CPD, 2005-2009)	24
2. 8. UNDP 사업의 분석	25
제3장 경제개발과 UNDP	30
3. 1. 한국, 그 도약을 위한 준비 (1950-1971)	30
3. 2. 산업의 고도화 (1972-1979)	36
3. 3. 1980년 이후의 UNDP 활동	43
제4장 인간개발과 UNDP	48
4. 1. 가난을 없애자 : 직업훈련을 통한 인간개발	50
4. 2. 유리천장(glass ceiling) 부수기 : 여성권한신장과 UNDP	54

4. 3. 지구를 구하자 : UNDP와 환경보호사업	61
제5장 국제개발과 UNDP	67
5. 1.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68
5. 2. TCDC와 초기국제협력(1997-2004) : 남남협력을 통한 경험 전수	69
5. 3. MDG 8을 향해서	73
결론 : 동지를 떠나며	78
부 록	
부록 1. UNDP 사업목록	80
부록 2. 역대 UNDP 주한대표부 대표 명단	95
표 목록	
표 2-1 UNDP 사업실태, Sector기준, 착수연도기준	18
표 2-2 UNDP 사업분류표	19
표 2-3 한국-UNDP 국가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개요	26
표 2-4 UNDP 사업의 변화 추이	27
표 4-1 한국의 GDI / GEM / HDI 순위변화	56
그림 목록	
그림 2-1 국가사업 분담금 변화(1963-2009)	27
그림 2-2 UNDP 사업의 변화 추이	28
그림 3-1 신조선 수주량 상위 5개국	41
그림 4-1 한국의 GDI, GEM, HDI의 상대적 위치	56

발간사

196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과 UNDP의 협력관계는 2009년으로 제1막을 내리고 2010년부터는 순공여국의 위치에서 UN의 새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공여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960-1980년대에 UNDP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대표적인 수혜국의 하나였으나 1993년 수혜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많은 순공여국(NCC: Net Contributor Country)이 되었고, 2009년 11월 25일 OECD개발원조위원회(OECD/DAC)의 24번째 가입국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여국으로 그 지위가 전환되었습니다.


UNDP는 대한민국이 대규모의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한 1960년대 초부터 국가협력사업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문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장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사회의 주변화 된 영역들을 소홀히 했던 1980-90년대에는 환경보호, 시민사회단체 육성,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대한민국이 UNDP의 원조 순공여국이 된 이후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활동하는 방식을 일러 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과정에 UNDP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UNDP가 반세기 동안 한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하여 발간됩니다. 1963년부터 2009년까지 UNDP는 대한민국에서 270개가 넘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UNDP의 사업이 일궈낸

업적과 한국사회에 미친 긍정적 파급효과는 사업에 참가한 전문가집단만 알고 있을 뿐, 일반 시민에게는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UNDP 사업의 내용이 전문분야의 영문서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대중성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어려운 내용을 되도록이면 쉽게,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분야의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UNDP와의 협력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UNDP 서울대표부의 역대 대표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 한-UNDP 국가협력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준 교육과학기술부 박진선 국제교류협력과장과 최현 주무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집필을 담당해주신 동아대학교 임석준 교수님의 수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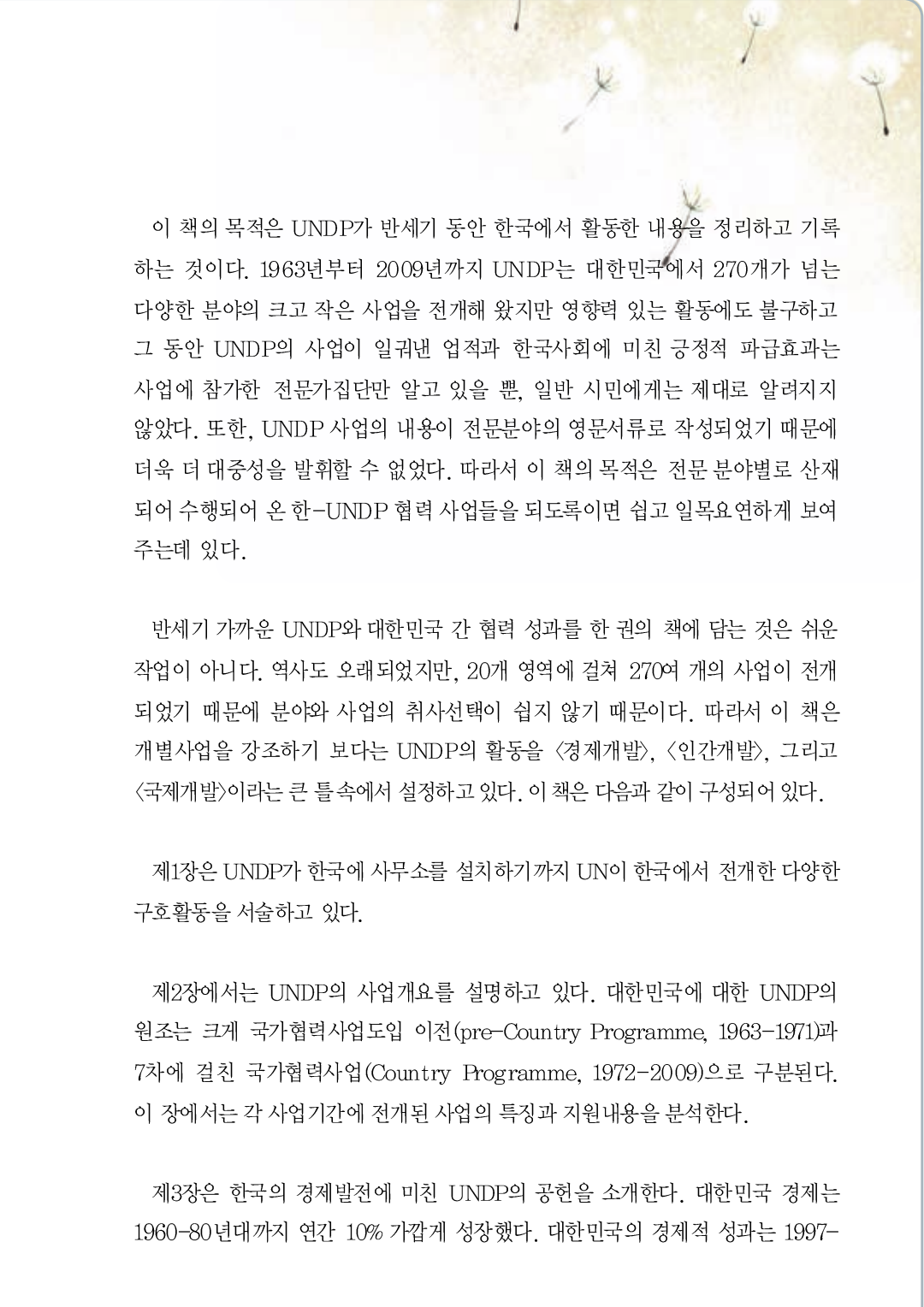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 



서론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빈곤의 멍을 탈출하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성공한 국제사회의 전대미문의 국가로 우뚝 섰다.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고 오랜 기간을 지독한 빈국으로 보냈지만, 국민의 근면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주목할 만한 성과는 정부와 국민의 일치단결된 노력 덕분이겠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UN의 개발원조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UNDP는 대한민국의 걸음마 단계부터 경제가 힘차게 달리기 시작한 1960-70년대, 사회발전 단계인 1980-90년대, 그리고 국제사회에 공헌을 위한 준비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은 UN의 보호아래 독립국으로서 국제무대에 등장했으며 UN군은 한국 전쟁 3년 동안(1950-1953) 한국의 존속을 보증했다. 1950년대 UN은 당시 국민 총생산이 100달러 이하였던 대한민국에 막대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전후 복구와 평화재건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UNDP는 대한민국이 대규모의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한 1960년대부터 잘 준비된 국가사업계획을 통해 필요한 자문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장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사회의 주변화 된 영역들을 소홀히 했을 때, 환경보호, 시민사회육성, 그리고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였다. UNDP의 지원 덕분에 현재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아낌없는 지원을 다른 국가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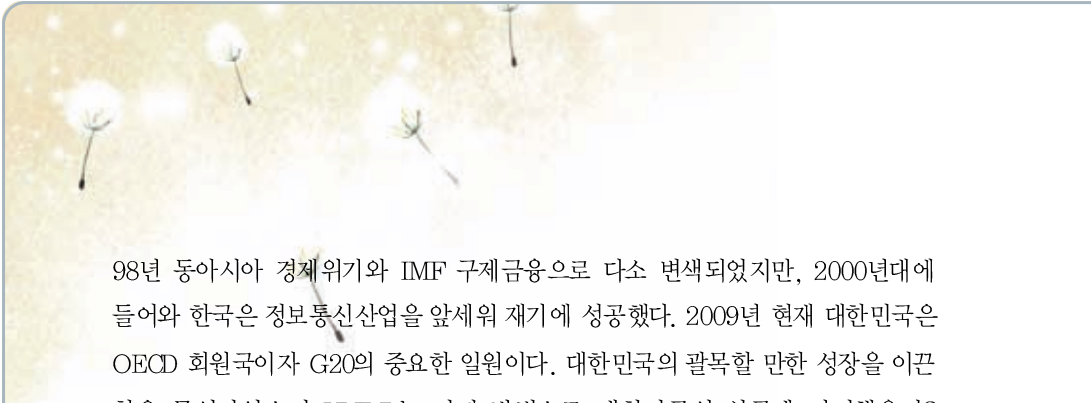
이 책의 목적은 UNDP가 반세기 동안 한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1963년부터 2009년까지 UNDP는 대한민국에서 270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영향력 있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UNDP의 사업이 일궈낸 업적과 한국사회에 미친 긍정적 파급효과는 사업에 참가한 전문가집단만 알고 있을 뿐, 일반 시민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UNDP 사업의 내용이 전문분야의 영문서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대중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전문 분야별로 산재되어 수행되어 온 한-UNDP 협력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쉽고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데 있다.

반세기 가까운 UNDP와 대한민국 간 협력 성과를 한 권의 책에 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20개 영역에 걸쳐 270여 개의 사업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분야와 사업의 취사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개별사업을 강조하기 보다는 UNDP의 활동을 <경제개발>, <인간개발>, 그리고 <국제개발>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설정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UNDP가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기까지 UN이 한국에서 전개한 다양한 구호활동을 서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UNDP의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UNDP의 원조는 크게 국가협력사업도입 이전(pre-Country Programme, 1963-1971)과 7차에 걸친 국가협력사업(Country Programme, 1972-2009)으로 구분된다. 이 장에서는 각 사업기간에 전개된 사업의 특징과 지원내용을 분석한다.

제3장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친 UNDP의 공헌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1960-80년대까지 연간 10% 가깝게 성장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과는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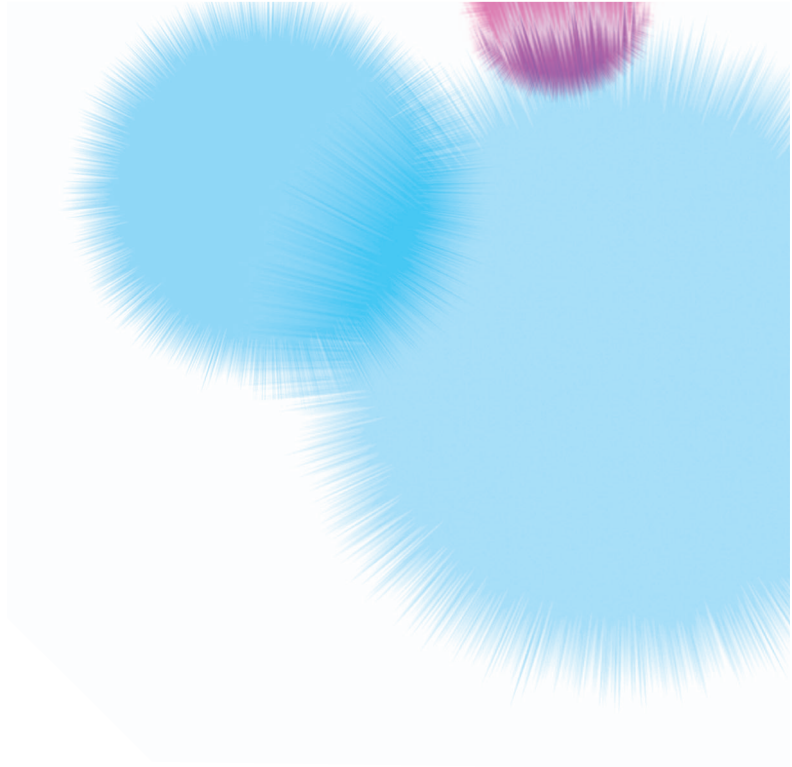


98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IMF 구제금융으로 다소 변색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정보통신산업을 앞세워 재기에 성공했다.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이자 G20의 중요한 일원이다. 대한민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끈 힘은 무엇이었으며 UNDP는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성공에 기여했을까?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경제정책변화의 시각으로 요약하고, 성공에 도움을 준 UNDP의 주요 지원사업들을 분석한다.

제4장은 UNDP와 인간개발에 관한 장이다. 인간개발이란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한 능력(capabilities)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다양한 구속(unfreedom)들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속으로는 빈곤과 폭정, 빈약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박탈, 공공 서비스의 부족, 양성 불평등 등이 포함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인간개발을 위해서 UNDP가 전개한 사업들을 분석한다.

제5장은 UNDP와 국제개발에 관한 장이다. 국제개발이란 경제개발과 인간개발의 과제에 성공한 국가가 국제사회의 뒤쳐진 국가를 위해 자신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돌려주기 위한 사업의 시점은 1997년부터 시작된 제6차 국가사업부터라고 볼 수 있다. UNDP는 대한민국의 국제개발 노력을 개도국간 협력모델과 선진국-개도국간 협력모델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지원하였다. 이 장에서는 국제개발에 기여한 국가사업들을 소개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대한민국과 유엔개발계획(UNDP)

제1장 UN과 대한민국
제2장 UNDP의 국가사업 개요
제3장 경제개발과 UNDP
제4장 인간개발과 UNDP
제5장 국제개발과 UNDP
결론 : 동지를 떠나며

11000110110110111101010101010101010010



대한민국과 유엔개발계획(UNDP)

제 1 장 UN과 대한민국

- 1.1. 국가건설(state-building)과 UN (1945-1949)
- 1.2. 한국전쟁과 재건 (1950-1960)
- 1.3. 경제-사회 원조와 UNDP의 탄생



제1장 UN과 대한민국

1.1. 국가건설(state-building)과 UN (1945-1949)

국가건설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의 틀을 세우는 과정이다. 근대국가가 성공적으로 확립되려면 국민을 단위로 한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 조약을 체결하고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등 특정형태의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국은 비록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였지만, 근대적 의미의 국가건설은 오랜 기간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탓에 1945년 해방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UN은 1947년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건설을 위한 최초의 도움을 제공한다.

당시 유엔총회는 한반도에서 시행된 최초의 선거를 감독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파견했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임무는 가능하다면 한반도 전역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 과정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남한은 유엔총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지만 북한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입국을 거절했다. 딜레마에 봉착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은 당시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던 남한에 국한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전국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 직접투표로 구성된 의회인 제헌국회(또는 제헌의회)가 성립되었다. 그 회기는 1948년 5월 31일부터 동년 12월 18일까지 총 203일간이었고 총 200의석 중 제주도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주도 2개 지역구는 4.3사태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유엔총회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 효과적 통제와 관할권을 소유한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이 설립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한 선거가 UN의 보호아래 개최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선거 후 임시위원단은 상설기구인 유엔한국위원단(UNCOK)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철수를 감시, 확인하고 새로운 국가의 발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1.2. 한국전쟁과 재건 (1950-1960)

1950년 6월 25일 새벽, UN은 유엔한국위원단(UNCOK)을 통해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음을 통보 받았다. 같은 날,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이를 '평화를 침해하기 위한 공격'이라 공표하고 북한군의 즉각적인 전투중지와 38선으로의 후퇴를 요구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침략자를 격퇴하고 대한민국의 안정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1950년 7월 7일 이사회는 군사력 지원을 위해 미국과 권고된 회원국으로 국제연합군의 창설을 승인했다. 회원국의 대다수는 파견군, 의료, 야전의무부대,



전략물자, 식량공급 등의 형식으로 원조를 제공했다. 또한 전쟁 기간 및 전 후에 다양한 UN기관이 대한민국에 원조를 제공했는데,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유네스코(UNESCO),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유니세프(UNICEF) 등이 한국전쟁을 전후로 대한민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전후 대한민국은 국가재건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전쟁은 물질적인 피해와 국토의 황폐화는 물론이고, 인간 삶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다. 서울은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전국의 주요도시들도 막대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50년 12월 유엔총회는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을 결성하고 1951년 7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UNKRA는 전쟁 중 긴급한 구호사업을 벌이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공업시설 건설사업으로 판유리·연탄공장·시멘트 공장·비료공장·전력시설 등을 선정하고 그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UNKRA는 또한 학교, 특히 당시로서는 매우 부족했던 기술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부산의 상선해병사관학교(Merchant Marine Academy), 대구의과대학, 동래재건센터 등이 UNKRA에 의해 갖추어졌다.

경제재건 외에도, UNKRA는 한국전쟁으로 집을 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다. UN회원 34개국과 비회원 5개국은 1958년 7월 1일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UNKRA 사업에 148백만 달러를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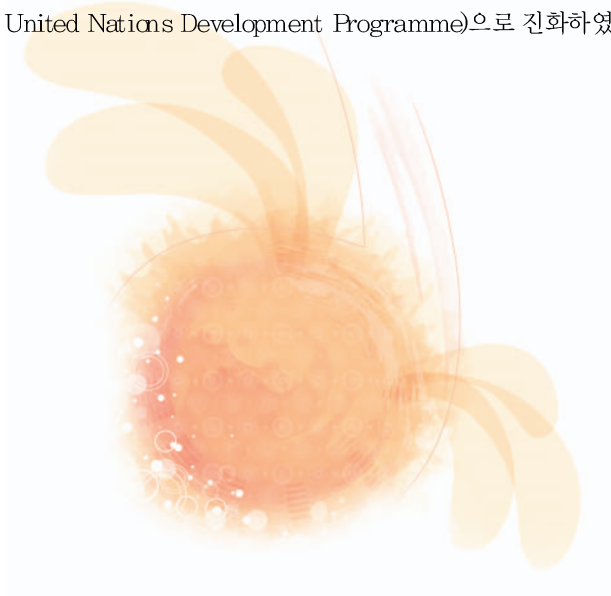
유엔기술원조기구(UNTAB: UN Technical Assistance Board)는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을 후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다. UNTAB 사업들은 국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원조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기술 연수를 받는데 주력하였다. 1952년 UNTAB는 23명의 연구원들이 경제 계획, 철도건설, 공공관리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듬해에는 15명의 연구원들이 운송, 산업개발, 조세, 경제개발, 공공관리 등의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 받았다.

주한유엔민간구호사령부(UNCACK: UN Civil Assistance Corps Korea)는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기아방지에 기여했다. 남한 인구의 70%가 천연두, 장티푸스, 발진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았고, 발진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해 1천2백만 명의 국민들에게 DDT가 뿌려졌으며, 항구도시의 주민들은 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주사를 맞았다. 주한유엔민간구호사령부(UNCACK)에 의해 고용된 민간전문가들과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충원된 전문가들 외에도 다른 유엔 전문 기구들 및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전문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난민기구는 35명의 보건 및 복지요원과 위생 전문가를 파견했고 국제노동기구는 대한민국정부에 2명의 자문관을 파견했다.



1.3. 경제-사회 원조와 UNDP의 탄생

1961년 4월 21일 유엔특별기금(UNSF:UN Special Fund)과 대한민국은 '한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 사회, 기술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원조협정'에 서명했다. 1963년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엔기술원조기구(UNTAB)/유엔특별기금(UNSF)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립되었다. 이 현장사무소는 1965년 UN이 기술적 협력을 위해 확대기술원조계획(EPTA: Expanded Programme of Technical Assistance)과 유엔특별기금(UNSF)을 통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으로 진화하였다.



제 2장 UNDP의 국가사업 개요

- 2.1. 제1차 국가사업 (1972-1976)
- 2.2. 제2차 국가사업 (1977-1981)
- 2.3. 제3차 국가사업 (1982-1986)
- 2.4. 제4차 국가사업 (1987-1991)
- 2.5. 제5차 국가사업 (1992-1996)
- 2.6. 제6차 국가사업 (CCF, 1997-2004)
- 2.7. 제7차 국가사업 (CPD, 2005-2009)
- 2.8. UNDP 사업의 분석



제2장 UNDP의 국가사업 개요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원조는 크게 국가협력사업도입 이전(pre-Country Programme, 1963-1971)과 7차에 걸친 국가협력사업(Country Programme, 1972-2009)으로 구분된다. 국가협력사업 이전기간에 수행된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 정부보다는 UNDP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기간에 UNDP에 의해 지원된 사업들은 농림수산업과 경공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 기간 총 34개의 사업이 실행되었는데, 그 중 14개가 농림수산업, 7개가 공업, 5개가 일반개발 분야의 사업에 해당된다(아래 표 참고).

〈표 2-1〉 UNDP 사업실태, 영역(Sector)기준, 착수연도기준

영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시기																						
CP도입이전 (63-71)		5				14	7		1				1	4						2		34
제1차(72-76)		3		2		9	13		1			1	2		3		2			5		41
제2차(77-81)		6		3			5	2					1	1						5		23
제3차(82-86)		10		2		5	17		2				1	1	1		1			6		46
제4차(87-91)		5		2	1	2	6	3						2	4		1	1	12	1		40
제5차(92-96)		9	2		2	3	1	1				1	1	1	2	1	8			2	4	38
제6차(97-04)		6	1	1		3			1				1	1			4			3	4	25
제7차(05-09)		4						1				1	4	3	1		4	2	4	4		28
		0	48	3	10	3	36	49	7	5	0	0	3	11	13	11	1	20	3	39	13	275

1960년대 대한민국은 수출입국이라는 기치하에 노동집약상품의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식량의 약 16%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1963-1967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간식량(주로 쌀, 밀, 옥수수, 콩) 수입은 평균 815천 톤(metric ton)이었으며 1969년 이러한 수입량의 가치는 182백만 달러에 도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하여 정부는 의화를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UNDP와 한국정부는 식량생산(특히 쌀, 밀, 옥수수, 콩) 증대를 최우선시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UNDP는 농작물 생산, 토양연구, 수질관리, 그리고 토지개간에 대한 각종 기구를 설립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돕는데 주력하였다.

〈표 2-2〉 UNDP 사업분류표

코 드	영 역	코 드	영 역
01	정치	11	인구
02	일반개발	12	인간정주
03	통계	13	건강
04	천연자원	14	교육
05	에너지	15	고용
06	농림수산업	16	인도적 지원과 재난관리
07	공업	17	사회개발
08	교통	18	문화
09	정보통신	19	과학기술
10	무역개발	20	환경

2.1. 제1차 국가사업 (1972-1976)

1972년부터 모든 사업들은 국가협력사업계획을 통해 이행되었다. UNDP가 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던 국가사업이전 기간과는 차별적으로, 1972년부터는 한국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스스로 선별하고 착수하였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반영한 자연스런 조치였다.



제1차 국가사업(1972-76)기간 동안 UNDP의 원조는 공업과 과학기술 분야로 옮겨왔다. 이는 국가협력사업 이전기간의 원조가 농림수산업에 집중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공업화 의지를 UNDP가 다각적으로 지원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총 41개의 사업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 공업(13개)과 과학기술(5개) 분야에 18개 사업이 배정되었다.

2.2. 제2차 국가사업 (1977-1981)

197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기술집약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기술집약산업으로의 이행에는 당연히 숙련된 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제2차 국가사업기간의 주요 목표는 숙련된 인력개발에 있었다.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UNDP는 엔지니어, 기술자, 기능공을 숙련의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자질평가프로그램을 고안했다. UNDP의 기술분류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는 당시 과학기술처 산하의 정부출연 기관으로 기술자질평가기관(Technical Qualification Testing Agency)¹⁾을 설립했다. 오늘날까지 이 기관은 국가의 기술적 능력평가와 기술인증 사업을 관장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개발 6개, 공업 5개, 과학기술 5개 등 23개의 사업이 실행되었다.

2.3. 제3차 국가사업 (1982-1986)

UNDP 제3차 국가사업은 한국의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제3차 국가사업은 3가지 영역을 중점대상으로 설

1) 오늘날 기술표준원(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하였는데, 이는 국가발전에 대한 정책기획능력 강화, 중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능력 배양, 그리고 에너지 영역에서 천연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이용이었다. 특히 UNDP의 사업 중 통계, 구조조정, 개발계획, 그리고 공기업 성과평가에 대한 사업들은 정부의 정책기획능력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제3차 국가사업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해외 전문가들이 아닌 국내의 국가사업책임자(National Project Coordinator)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가사업책임자의 사업 수행으로 UNDP 한국 사무소의 현지 직원들은 사업관리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제3차 국가사업기간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변화는 UNDP 사업이 점진적으로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1980년대 초부터 국제 세미나를 통해 다른 개발도상국과 성공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제3차 국가사업기간에 진행된 46개 사업 중, 공업분야에 17개 그리고 일반개발분야에 10개의 사업이 지원되었다. 주목할 점은 일반개발분야에 대한 지원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즉,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관련정책 연구, 한국의 에너지 정책 연구, 국가통계 개선에 대한 연구,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수정작업 지원 등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2.4. 제4차 국가사업 (1987-1991)

제4차 국가사업은 연구개발 기구의 설립과 역량강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이 기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산업공학, 독물학, 약학, 의류염색, 어업, 광물탐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적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확장, 강화하는 사업들도



진행되었고, 특히 한국의 산업자산시스템을 근대화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총 40개의 사업 중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12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공업(6개)과 일반개발(5개)이 그 뒤를 이었다.

제4차 국가사업기간 중 대한민국의 주요한 외교적 성과는 1991년 UN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UN 가입 이후 대한민국은 평화유지군 활동을 비롯한 UN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2006년에는 UN에 가입한지 불과 15년 만에 한국인 사무총장을 배출시키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2.5. 제5차 국가사업 (1992-1996)

대한민국과 UNDP의 협력관계는 제5차 국가사업(1992-1996)에 들어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첫째, 사업집행의 주체가 정부가 되는 국가집행체제(NEX: National Execution)의 도입이다. 이전 20년(1972-1991) 동안 UNDP 사업들은 주로 유엔시스템의 전문화된 기관들을 통해 집행되었으나, 제5차 국가사업부터는 한국 정부가 UNDP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NEX 체제로 전환되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UNDP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기 시작하였다. NEX 체제로의 전환은 사업의 소유권(ownership)을 정부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²⁾

둘째,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5차 국가사업은 환경 및 인간개발의 영역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1970-80년대에는 정부가 삶의 양적 측면인 경

2) 1995년 제5차 국가사업의 중간평가에서 UNDP는 NEX 체제의 장점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도적 자원(institutional resources)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었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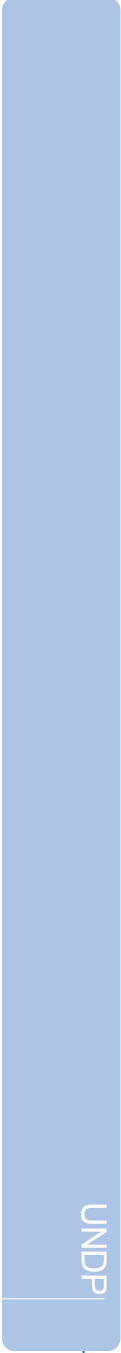
제개발에 매진했기 때문에 삶의 질과 관계되는 교육, 주택, 건강, 복지 등의 인간개발문제는 소홀하였다. 그러나 제5차 국가사업에서는 환경보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고용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의 확대, 그리고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반영하여 이 기간 총 38개의 사업 중 일반개발(general development)과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부문에 대한 사업이 각각 9개와 8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셋째, 제5차 국가사업기간에 대한민국은 국제원조의 순공여국(NCC: Net Contributor Country)으로 부상하였다. 순공여국으로서 변화된 지위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UNDP 사업은 개도국간 협력이라는 기치하에 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보다 확대된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야심 차게 전개된 두만강유역개발사업(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은 당시 지역협력의 대표적 사업이었다.

2.6. 제 6차 국가사업 (CCF, 1997-2004)

40년에 가까운 협력 후 UNDP는 대한민국을 원조를 받은 국가 중 경제 개발의 모델국가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을 제5차 국가사업(1992-1996) 완료 후 UNDP의 미래 원조대상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국가적 위기와 특수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UNDP는 후속사업(1998-1999)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후속사업은 이후 국가협력프레임워크(CCF: Country Cooperation Framework)라고 정식 명칭을 부여 받았고, 1차 CCF(1998-2000)에 이어 2차 CCF(2001-2004)까지 연장되었다.

1차 CCF(1998-2000)는 환경, 과학기술, 여성(Gender), 빈곤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인간개발(SH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의 실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요한 UN의 국제회의들-환경과 개발에 대한 유엔회의(UNCED: 1992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사회개발에 대한 정상회의(1995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여성에 대한 제4차 세계회의(1995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에서 도출된 의제를 크게 참고하였다. 1차 CCF 동안 총 17개의 사업이 전개되었고, 그 중 환경분야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1차 CCF에 투입된 총비용은 600만 달러로 그 중 대한민국 정부, NGO, 민간단체가 부담한 금액은 420만 달러였다(DP/CCF/ROK/2).

2차 CCF(2001-2004)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대한민국이 UNDP에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순공여국의 지위를 넘어 개발협력국(development partner) 지위를 얻었다는 점이다. 개발협력국으로서 대한민국은 UNDP에 자금만을 지원하는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UNDP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전파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따라서, 이 기간에 실행된 모든 사업은 그 기획단계부터 원조적 요소를 감안하여 설계되었다(built-in outreach assistance). 사업을 실행한 기관들은 사업의 내용 및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information dissemination) 개발도상국에 교육훈련을 제공하는데 주력하였다. 2차 CCF 기간 대한민국은 해외원조의 대한민국 모델(Korean Model)을 지역적, 세계적 무대로 전파하려 하였다.

2.7. 제7차 국가사업 (CPD, 2005-2009)

제7차 국가사업은 대한민국이 완숙한 공여국이 되기 위한 최종 점검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미 UNDP가 철수할 것을 상정하고 기획한 국가사업 단계로, 이 기간에는 대한민국의 성공적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의 설계단계에서 UNDP는 사업들이 빈곤퇴치, 새천년개발목표(MDGs), 결과중심관리기법(RBM: Results Based Management) 등 UN의 최근 방향에 맞추어 설계되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업이 수혜자 중심(demand-driven)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훈련은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원조 공여국이 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실행된 사업들은 일반개발, 보건, 교육, 사회개발, 과학기술, 환경 등 고른 분야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은 사업들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협력 사업의 대부분은 협력대상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분야, 교육, 건강관리 등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집중되었다. 주요 협력대상국가는 사모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이었으며 이 이외에도 튀니지, 페루가 포함되었다.

2.8. UNDP 사업의 분석

아래 표는 1963-2009년까지 대한민국과 UNDP의 협력사업을 요약한 것이다. UNDP 사업의 재원은 일반적으로 UNDP와 정부가 분담하는데, 그 분담비율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변한다. 즉,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의 경우는 UNDP가 많은 부분을 분담하는 반면,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분담하는 사업비의 비율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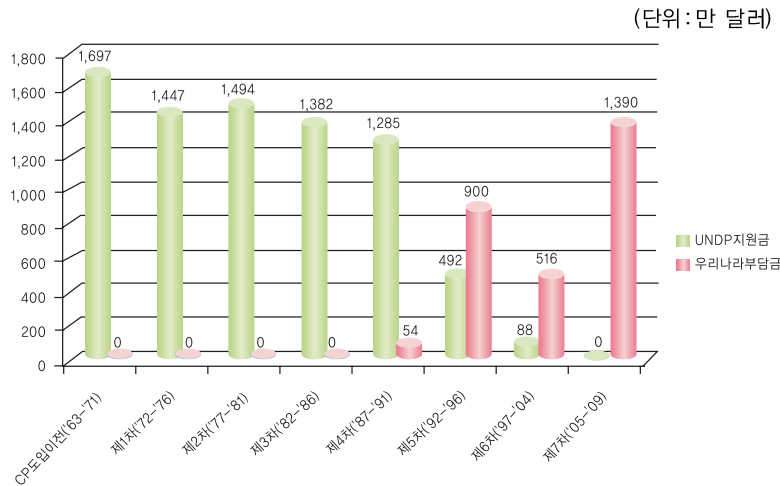
〈표 2-3〉 한국-UNDP 국가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개요

(단위 : 만 달러)

사업 기간	중 점 지 원 분 야	UNDP 지원금	한 국 부담금	계
국가사업제도 이전(63-' 71)	•농림수산부문, 전문가 초청자문 및 훈련생 파견	1,697	0	1,697
제1차(72-' 76)	•주곡자급 및 농어민 소득증대	1,447	0	1,447
제2차(77-' 81)	•중화학공업육성 및 기술인력 양성	1,494	0	1,494
제3차(82-' 86)	•산업기술개발촉진 및 에너지기술지원	1,382	0	1,382
제4차(87-' 91)	•전략적 산업기술개발 및 기초과학 육성 •중소기업 전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1,285	54	1,339
제5차(92-' 96)	•산업구조 재조정 및 사회개발 •개도국 기술이전 및 환경관리 •두만강지역 개발	492	900	1,392
제6차(97-' 04)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 (SHD): 환경보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빈곤타파 •개도국간 협력 (TCDC)	88	516	604
제7차(05-' 09)	•과학기술, 환경, 복지, 문화, 노동, 양성 평등, 인력양성 등 제 분야 •M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0	1,390	1,390
계		7,885	2,860	10,745

〈표 2-3〉에서 보듯이 1963년부터 1986년까지 시행된 모든 사업의 재원은 UNDP가 전담하였다. 즉, 1963-86년의 23년 동안 UNDP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6,02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제4차 국가사업이 시작되는 1987년에 이르러서야 약간의 부담금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1987-91년 사이 총 사업비 1,339만 달러 중 대한민국이 부담한 금액은 54만 달러로 88서울 올림픽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UNDP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5차 국가사업에서는 총 사업비용 1,392만 달러 중 대한민국이 900만 달러, UNDP가 492만 달러를 부담하게 되어 한국 정부의 지분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7년부터는 대부분의 사업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있는 〈그림 2-1〉은 UNDP와 대한민국의 국가사업 부담금의 변화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 국가사업 분담금 변화 (1963-2009)



그렇다면 원조는 주로 어떤 분야(sector)에 이루어졌는가? UNDP 사업분류를 보여주는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UNDP는 국가협력사업을 20개의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섬세한 분류는 사업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커다란 흐름(trend)을 읽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따라서 아래 표와 그림은 UNDP가 지원한 상위 6개 분야만을 따로 떼어

〈표 2-4〉 UNDP 사업의 변화 추이

(금액기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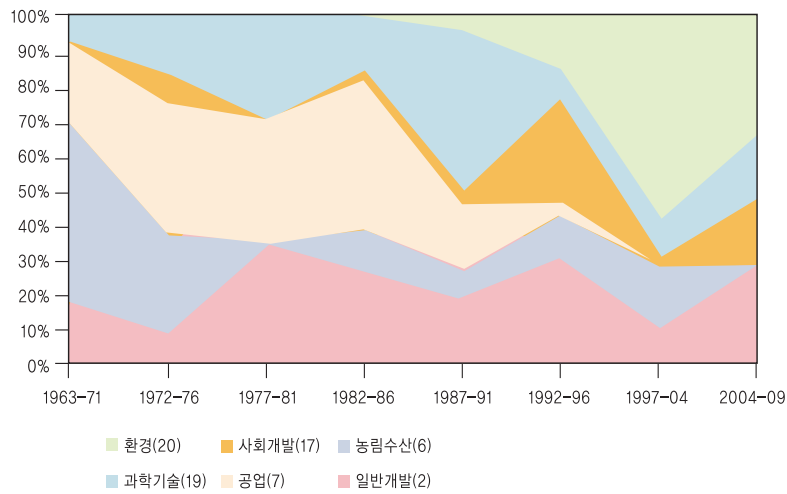
분야(Sector)	1963-71	1972-76	1977-81	1982-86	1987-91	1992-96	1997-04	2004-09
일반개발 (2)	17%	9%	35%	26%	19%	31%	11%	29%
농림수산 (6)	52%	28%	0%	13%	8%	11%	17%	0%
공업 (7)	24%	38%	35%	43%	19%	4%	0%	0%
사회개발 (17)	0%	9%	0%	3%	4%	31%	3%	20%
과학기술 (19)	7%	16%	30%	15%	46%	8%	11%	17%
환경 (20)	0%	0%	0%	0%	4%	15%	58%	3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내 분석한 것이다. 즉, 상위 6개 분야를 100으로 놓았을 때, 각 분야의 점유율 변화추이를 파악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단위는 사업의 빈도가 아니라 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2-2〉 UNDP 사업의 변화 추이

(금액기준, 비율 %)



위의 표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UNDP의 지원이 1960년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히 감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업분야는 1960-80년대 말까지 꾸준히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고도화되는 과정에 UNDP가 꾸준히 지원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환경분야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지원이 없다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여성을 포함하는 사회개발도 1980년대 말부터 지원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63-2009년까지 UNDP의 한국에 대한 자원투입은 적시적소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유엔개발계획(UNDP)

제 3 장 경제개발과 UNDP

- 3.1. 한국, 그 도약을 위한 준비 (1950-1971)
- 3.2. 산업의 고도화 (1972-1979)
- 3.3. 1980년 이후의 UNDP 활동



제3장 경제개발과 UNDP

잘 교육되고 숙련된 노동력,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높은 저축과 투자율, 호의적 무역환경, 그리고 국가의 기획력이 합쳐져 대한민국 경제는 1960-80년대까지 연간 10% 가깝게 성장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과는 1997-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으로 다소 빛이 바랬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정보통신산업을 앞세워 재기에 성공하였다.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이자 G20의 중요한 일원이다. 대한민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끈 힘은 무엇이었으며 UNDP는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성공에 기여했을까?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경제정책변화의 시각으로 요약하고, 성공에 도움을 준 UNDP의 주요 지원사업들을 분석한다.

3.1. 한국, 그 도약을 위한 준비

3.1.1. 전쟁과 재건 (1950-1960)

한국전쟁(1950-1953)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의 재건과 개발에 착수했다. 전쟁은 대한민국 산업의 3분의 2를 파괴하였고 150만의 사망자를 초래하였다. 전후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엔의 막대한 원조를 등에 업고 국내상품 생산을 통해 수입을 감소시키는 수입대체 (ISI :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정책을 추구하였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들의 재건,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

그리고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정부는 수입품을 엄격히 규제하였고, 과대평가된 환율정책을 유지하며 수입대체 정책을 실행했다. 1950년대 국제 원조는 대한민국수입의 6분의 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부분을 차지했다. 1950년대 수입대체 산업화(ISI)에 의해 성장된 핵심산업들은 섬유, 시멘트, 유리 등이었다. 1954년과 1961년 사이 한국경제는 연간 4.4% 성장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은 인구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3.1.2. 수출 도약(1962-71)

1950년대 후반 수입대체를 추구하던 한국경제는 큰 난관에 봉착하였다. 국내시장이 포화되어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높은 수입의존도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미국은 수입대체 산업화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원조를 삭감하려 했다. 대한민국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환을 얻어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는 산업화 전략을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 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로 변경했다. 사실 한국이 정확히 언제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 산업화로 그 정책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1961-1964까지의 군부통치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 많은 제도적 개혁이 수출지향적 전략을 수립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시각이 타당할 것이다. 1961-1964 동안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및 도구가 개발되었다. 한국형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경제기획원(EPB: Economic Planning Board)은 1961년에 만들어졌고, 첫 번째 개발계획인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962-1966)도 이듬해(1962년) 수립되었다. 또한 1964-1965년의 환율개혁은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하였다.

1962-71년 사이 한국경제는 수출지향 산업화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수출은 연평균 30% 이상 증가했고, 1961년 전체 수출에서 22%를 차지했던 제조업은 1971년 86%





로 증가했다. 이 기간을 주도한 산업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 제조업이었다. 전자계산기,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조립산업, 섬유산업, 그리고 볼트·너트와 같은 단순 제조품이 수출을 이끌었다.

3.1.3. 개발계획 목표 달성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역할

1960년대 한국에 대한 UNDP의 기술원조는 총 1,697만 달러로 당시 한국의 경제와 물가 수준을 감안한다면 실로 막대했고 한국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UNDP의 투입 중 대부분은 농업, 지역계획 및 삼림, 그리고 어업부문에 집중되었다.

1) 농업

경제개발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인구증가와 함께 1인당 평균 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Kuznets 1988, S11). 따라서 농업생산의 증가는 경제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더라도 필수조건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노동력이 집중된 농경사회였다. 선사시대 이후로 쌀과 다른 곡물들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인구는 시골에 살았다. 1960년 전체인구의 61%가 농촌에 집중될 만큼 대한민국은 농업에 의존하는 사회였다.

농촌경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필요한 곡물의 16%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1963년부터 1967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간 식량수입(주로 쌀, 밀, 옥수수, 콩)은 평균 815,000톤(metric ton)을 기록했다.

1969년 식량수입은 182백만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수입이 부족한 외화의 상당한 부분을 소모시켰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식량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정부의 목적에 부응하여 UNDP는 작물생산, 토양조사, 수질관리, 토지 개간 등의 연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아래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UNDP가 지원한 농업관련 핵심사업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작물 생산증대의 근간은 정밀한 토양조사에 있으며, UNDP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토양비옥화와 토양연구에 3가지 사업을 지원하였다. 1963년 UNDP는 토양관리 부문의 실험과 훈련을 제공했고, 효과적인 비료의 사용과 토양개선을 위한 실험실을 설립했다(Soil Fertility and Soil Research, KOR-09). 한국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업생태지역과 토양상태에 대한 비료이용 지침을 확립하였다. 1964년 UNDP는 토양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도 전국적인 농업 및 삼림계획은 이 기간 UNDP의 지원으로 수행된 토양 및 산림조사에 기초하고 있다(Soil Survey, KOR-13).

위에서 소개한 두 사업들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정부는 사업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느꼈다. 따라서 UNDP는 이전 사업들을 통해 얻어진 정보의 보급을 위해 3명의 전문가를 파견했다. 1970년에 수행된 토양조사 및 비옥화 사업(ROK/70/011)의 주요 목표는 한국 정부의 농업 정책 형성을 조언하는 것이었다.

전체 농업생산의 10-20%가 질병과 해충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농작물 보호 관련 국내 기관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여 UNDP는 작물의 보호를 위한 조사 및 훈련 과정에 113만 달러를 투입하였다(Strengthening Plant Protection Research & Training, ROK/71/532). 그 사업으로 질병과 해충으로 인한 작물손실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궁극적으로 식량생산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증대되었다.

2) 지역계획과 산림관리

산과 산림은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지만, 1960년대 대한민국의 산림관리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산림조사와 개발사업(Forest Survey and Development, ROK/67/523)은 산림자원 개발, 토양 안정화, 유역상태 개선을 위해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170만 ha에 걸쳐 통합적인 답사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는 체계적인 산림녹화 및 침식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다.

낙동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이고, 한반도 전체에서는 압록강 다음으로 길다. 길이는 510.17km이고 유역면적은 23,384.21km²에 이른다. 영남지방 전역을 유역권으로 하고 있는 이 강은 경사도가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퇴적은 심하며 하구에 광대한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1965년에 UNDP는 낙동강 유역 수자원의 통합된 개발을 위한 사전투자조사(pre-investment survey)를 지원했다(Pre-Investment Survey of the Naktong River Basin, ROK/65/516). 낙동강유역의 수질관리, 관개 및 배수체계, 도시 물 공급, 하수처리시설, 홍수 범람 통제 등의 복합적 문제를 다룬 이 사업은 유역의 장기적 개발뿐만 아니라 수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1972년에는 낙동강유역 수질관리기구의 건설을 위한 기술 및 경제적 실효성 연구를 실시했다(Naktong River Basin Delta Studies, ROK/72/005). 이 연구는 낙동강을 삼각주 연구와 지류의 하부유역 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삼각주 연구는 낙동강하류의 광범위한 물 문제를 검토했는데, 구체적으로 하구 염해(河口鹽害) 및 역수(逆水), 농경 및 생태계 문제, 물 관리 등이 다루어졌다. 한편 지류 연구는 금호강 하위유역에 대한 통합된 개발계획을 준비했다. 이러한 사전투자연구의 성과는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정부가 대규모의 관개 개발과 물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완화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3) 수산업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식량원천으로써 수산업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었다. 그러나 해안지역에서의 어류 공급은 성장하는 수요를 따라 가지 못했다. 어류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UNDP는 연안어선이 근대적 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Coastal Fishing Training Center, ROK/68/525). 정부는 또한 자격을 갖춘 항해사, 해양기술자, 선박무선통신 운영기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UNDP의 원조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1964년 대한민국 정부와 UNDP는 원양어업훈련센터를 설립하는데 동의했다(Deep-sea Fishing Training Center, ROK/65/525).

원양어업훈련센터는 각각 갑판부문과 엔진부문에 나뉘어 훈련과정을 운영했다. 갑판부문은 트롤어업(trawling), 예인망(purse-seining), 격자그물망(grill-netting), 폴라인(pole-and-line) 어업 등과 같은 기본 어업기술을 강조하였고, 엔진부문은 엔진의 유지보수, 작동, 수리 등의 기술을 가르쳤다. 원양어업훈련센터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따라서 정부는 UNDP에게 당시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하던 가다랑어(skipjack tuna, 가츠오) 어업을 위한 선원훈련과정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

한국어업훈련센터는 어부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1968년과 1975년 사이 한국어업훈련센터는 2,500명 이상의 유능한 선원을 훈련시켰고, 한국의 어업은 경이적인 속도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한국어업훈련센터는 한국 정부의 협력사업을 통해 수많은 외국학생들에게도 어업기술을 제공하였다. 197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어업훈련센터를 대규모 국제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오늘날까지도





UNDP가 만든 한국어업훈련센터에서 훈련 받은 선원들이 대양을 누비며 한국의 역동적인 수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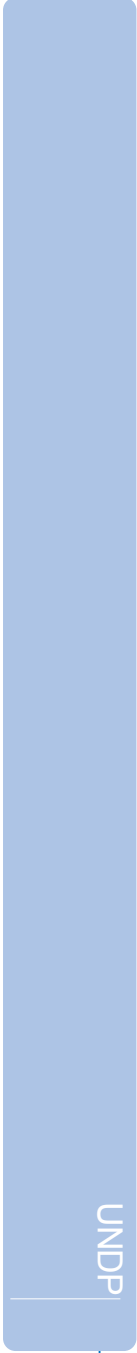
혹자는 한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UNDP의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이 한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60년대 UNDP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는 발전을 위한 기본적 조직과 제도적 역량을 키웠다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UNDP의 기술원조는 당시 식량생산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삼았던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연구와 훈련의 근간을 제공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3.2. 산업의 고도화 (1972-1979)

1970년대 초기 무렵,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기초하고 있던 한국의 성장전략은 다양한 난관에 직면했다. 첫째, 경공업 제조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낮았기 때문에 성장동력으로서 경공업의 장기적 전망은 어두워 보였다. 둘째, 선진 산업국가들은 저성장 주기에 접어들고 있었고, 이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을 야기했다. 한국, 대만과 같은 신흥발전국가의 수출품(특히 섬유산업)은 자율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 뒤늦게 산업화 대열에 참여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국가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오고 있었다.

● 선진국들의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 2차 신흥 개도국들로부터의 도전, 4배로 증가한 원유가격과 국내 실질임금의 증가는 대한민국이 그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중화학산업단계로 진입하도록 강요했다

실질임금의 증가는 이러한 경쟁환경을 악화시켰다. 대한민국의 수출주도성장은 저렴한 잉여노동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4배로 급등한 원유가격 앞에서 더 이상 임금을 시장수준 이하로 강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내외적 압력에 직면한 정부는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따라서 제3차(1972-76) 및 제4차(1977-81)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1973년 정부는 중화학관련산업 여섯 분야(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장치, 조선, 전자)에 약 9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중화학공업화 계획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중점영역에 투입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노동 집약에서 자본집약적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도박과 같은 믿음에 근거한 계획이었다.

중화학 영역 촉진을 위한 ‘합리적’ 설명은 당시 산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켜본 김정렴의 회고록에 잘 나타난다.

국가의 발전과정은 산업의 고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는 내수시장을 위한 산업화를 시작하여, 그 후 경공업제품의 대량생산을 통한 수출지향단계로 이동한다. 수출지향을 통해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 국가는 산업화의 궁극적 단계인 중화학공업화에 착수한다. 1960년대 한국은 제 1,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경공업의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동시에 우리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같은 중화학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를 했다. 우리는 자본, 기술, 마케팅의 부족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장애물들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에 차 있었다(김정렴, 1990, 324-325).³⁾

3) 김정렴 1990. 『한국 경제정책삼십년사 : 김정렴 회고록』 서울 : 중앙일보사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은 한국의 산업화 중 가장 중요한 산업정책이었다. 만약 가용자본을 중화학 영역으로 집중시키는 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은 오늘날의 발전된 산업구조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3.2.1. 중화학공업화와 UNDP의 역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전략은 기술과 자본집약산업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영역에 의해 수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어떻게 필요자원(자본, 기술, 숙련된 인력, 기업가 정신)을 동원하고 집중시킬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화를 돕기 위해 1970년대 UNDP 사업들은 숙련된 인력개발에 집중했다. UNDP는 다양한 수준의 엔지니어링 및 기술학교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서 중화학공업화 영역이 요구하는 인재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1) 숙련된 인력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특히 교육과 훈련에 대한)는 성공한 경제의 공통점이듯이, 대한민국도 숙련된 인력 없이는 오늘날의 지위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개발은 사람들의 기술과 태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the most effective development consists of improving people’s skills and attitudes)”는 것은 UNDP의 기본 신조이다. 이러한 UNDP의 철학은 한국에 인력훈련을 위한 다양한 기구를 지원하고 설립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예를 들어 1968-1972년 UNDP 사업으로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은 숙련 인력 개발에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였다(Central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ROK/68/526). UNDP 사업으로 형성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디자이너들의 훈련과 포장에 대한 기준을 향상시켰다. 세련된 고품질의 포장기술 없이는 한국이 훌륭한 수출국의 지위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76년 당시 과학기술처 산하에 설립된 '기술자질평가기관'은 엔지니어, 기술자, 숙련공의 기술을 분류·측정·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2) 기술 업그레이드

1966년 UNDP의 지원 하에 한국정부는 기계 및 전자기기 교정과 제조업의 유지보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밀기기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유관분야의 기술훈련사업을 담당했다.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UNDP의 원조도 이에 맞추어 변화했다. 즉, 증가되는 기술수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UNDP는 1972년 총 871천 달러를 정밀기기센터의 기기 및 전자교정 장치 그리고 표준화 활동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했다(Fine Instruments Centre, Phase II, ROK/72/004).

기술집약수출산업을 강조했던 제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정부는 전자제품의 생산을 4배로 증대시킨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평가 및 품질관리, 교정, 신뢰도, 환경평가서비스 등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UNDP의 정밀기기센터 내에 '신뢰도 및 환경실험 센터(Reliability and Environmental Testing Center)'를 설립하도록 지원하였다(ROK/77/004). 이 시설은 필요한 품질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자기기 제조 및 수출업체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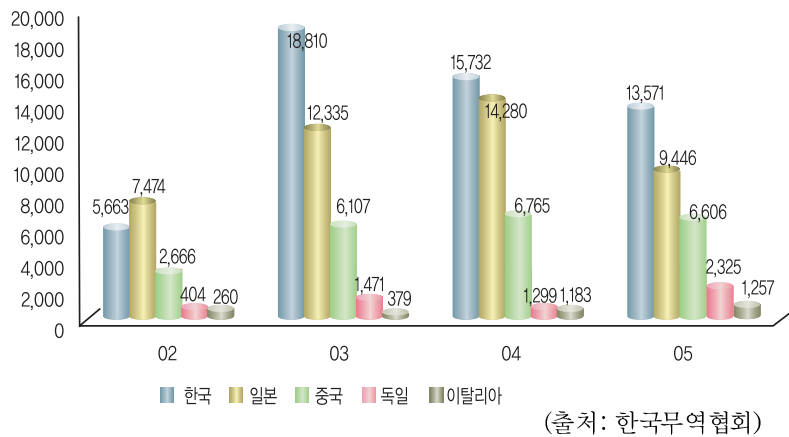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은 세계 제1위의 선박 제조국이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 조선산업은 국내기술의 부재로 미래전망이 불확실한 영역이었다. 1945년부터 1968년까지 정부는 일제가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설립한 대한조선공사(Korea Shipbuilding and Engineering Corporation)을 운영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현대식 조선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계획에 착수했을 때 우리의 기술적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숙련된 엔지니어와 설계사의 부족으로 한국의 조선기술 수준은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 정교한 선박을 설계하고 제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분야의 기술력과 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73년 선박설계, 해양공학, 조선 등과 관련된 모든 연구활동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 조선산업기술지원센터(SITS :Shipbuilding Industry Technical Services)를 설립했다(ROK/72/026). UNDP는 자문관, 해외협력훈련, 기초장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 기관의 설립을 도왔다. SITS는 당시 지나치게 많은 작은 기구들에 흩어져 있던 한국의 해양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SITS에서 재교육을 받은 후 조선업계 혹은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UNDP는 1975년에 선박용접 및 선박에 들어가는 철의 제조기술을 전수하기도 하였다(Shipbuilding Welding & Steel Fabrication, ROK/75/010).

한국 정부, UNDP, 그리고 조선산업기술지원센터의 공동 노력 덕택에 한국 조선산업의 시장점유율은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 이은 세계 2위로 올라섰고,

〈그림 3-1〉 신조선 수주량 상위 5개국

(단위: 만 CGT)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 10대 조선소 가운데 7개를 보유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조선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2009년 현재 한국의 조선산업은 수주, 건조, 수주 잔량 등의 지표에서뿐만 아니라 건조기술에 있어서도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선산업과 더불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산업이 있다면 그것은 반도체 산업이다. 1973년 중화학산업촉진을 위한 6개 전략사업 중 하나로 선택된 이후 전자산업은 5년 연속 생산을 두 배로 증대시킴으로써 경이로운 성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업적에 고무된 정부는 반도체 생산으로의 이행을 위해 전자산업을 고도화 시키기로 결정했다. UNDP는 한국 정부의 의욕적인 계획을 기꺼이 수용하여 1975년부터 ‘반도체기술개발센터’의 설립을 원조했다(ROK/75/019.)



반도체기술개발센터의 목적은 증가하는 전자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도체장치와 통합회로(IC)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었다. 이 센터는 처음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소속되었지만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체들과의 협력적 연구와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구미의 전자산업복합단지으로 이전하였다. 오늘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 제조업을 이끌고 있다.

기술적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례

1972년 UNDP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제조업체들이 해외시장의 요구를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한다(Pilot Project on Product Adaptation, ROK/72/023).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UNDP와 KOTRA는 중소기업의 상품수출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처음에 생각하였던 설계조건보다는 생산기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신속하게 수정되었고 UNDP는 세라믹, 철제 접시, 철제 사무기구 등의 영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고문을 파견했다. UNDP 전문가들은 직접 공장으로 향했고, 어떻게 생산공정을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해외시장표준을 충족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이런 활동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UNDP가 제2차 국가사업(1977-1981) 기간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사업의 두 번째 주기 동안에도 유사한 현장업무 서비스가 실크 섬유와 장난감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3)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계획

1962년 경제개발계획의 시작 이래로 한국 정부는 7,500만 달러(1970년 환율 기준)를 향만에 투자하여 국가의 화물취급용량을 1962년 990만 톤에서 1969년 1,780만 톤까지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말

한국의 항만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무역량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1969년 한국정부는 항만물류에 대한 수요가 1981년쯤에는 세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추가적 항만시설이 요구되었고 기존의 항만도 근대화되어야 했다. 1971년 정부는 항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UNDP에게 원조를 요청했다(Port Development Study, ROK/71/537).

UNDP가 지원한 항만개발연구 프로젝트는 항만운영과 자금관리를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현대식 화물취급장비 및 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항구시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부산항과 인천항은 UNDP의 청사진,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의 자본, 그리고 한국의 노동력이 이룬 삼각협력에 의해 근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 1980년 이후의 UNDP 활동

3.3.1. 경제정책수립과 UNDP의 역할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가 정책수단들을 실용적이며 유연하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좋은 결과를 낸 정책들은 지속되었지만 실패하거나 다른 정책 목표들을 방해했던 정책은 신속히 폐기되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 금융체계에 대한 국고비용과 압력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했을 당시 한국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을 완화시켰다.





대한민국 경제계획 수립의 최전선에는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이 자리잡고 있었다. 1961년에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정부의 결의와 장기적 경제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이었다. 경제기획원은 예산수립 및 계획의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된 초대형기관이었다.

경제기획원의 역사 및 신화는 대부분의 한국인과 경제사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지만, UNDP가 경제기획원에 자문하였다는 사실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놀랄 것이다. 정부가 최초로 UNDP에게 경제계획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것은 1975년 한국이 높은 국내물가 상승률, 원유가격 상승, 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후퇴에 직면하고 있을 시기였다. 정부의 요청으로 UNDP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경제기획원에 고문단을 파견하였고, 1975-76년에 걸쳐 이들 전문가들은 정부에게 40인/월(man/months)에 해당하는 단기자문과 50인/월(man/months)에 해당하는 단체 훈련을 제공하였다.

제5차 5개년 계획(1982-86)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구조가 심화되고 투자규모가 증대되어 경제발전과 사회개발목적 사이의 신중한 균형이 유지될 필요를 느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은 보다 정교한 계획을 고안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가진 전문가를 초청하였고, 이를 UNDP가 원조하였다(Studies for Structural Adjustment, ROK/82/ 002). 1980년대 중반 국제원유가격이 감소하고, 국내저축과 수출이 증가하는 유리한 경제환경에 처하자 정부는 제5차 계획을 수정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UNDP의 자문을 구했다(Assistance in Development

Planning, ROK/85/002).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수지는 막대한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고 정부는 1980년대 쌓인 외채를 1990년쯤 청산하였다. 1996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000달러를 넘어섰고,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⁴⁾는 0.34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3.2. 중소기업 개발촉진과 UN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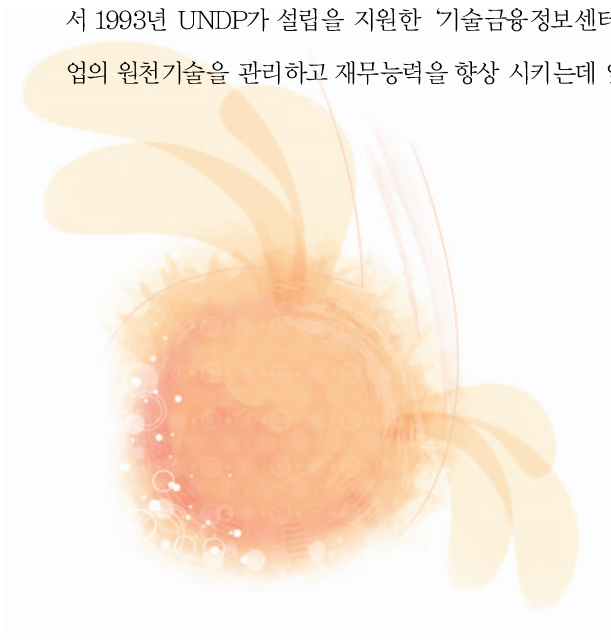
한국의 경제개발은 주로 강력한 정부지원으로부터 이득을 취했던 거대기업, 이른바 재벌에 의해 주도되었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술, 자본, 경영혁신의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러나, 생산의 세계화는 다양한 특화된 시장을 만들었으며 중소기업들은 변화된 시장의 많은 기회들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 역시 1980년대부터 국내의 경제집중에 대한 우려와 변화된 세계시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특히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기업)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들을 장려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과 함께 UNDP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집중지원’(ROK/82/034), ‘중소기업의 자동화’(ROK/87/001), 그리고 ‘산업관리 컴퓨터지원의 개선’(ROK/87/017)은 UNDP가 중소기업을 지원한 좋은 사례들이다.

4)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UNDP의 다양한 원조들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의 성과는 중소기업의 제한된 자본력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1991년부터 UNDP는 국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서비스를 혁신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었다. 단적인 예로, 1993년 UNDP는 한국기술금융재단(KTB: Korea Technology Bank)의 서비스를 혁신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국내외적으로 강화시키려 하였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Enhancement of SM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OK/93/007). 유사한 맥락에서 1993년 UNDP가 설립을 지원한 '기술금융정보센터(ROK/93 002)'는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을 관리하고 재무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앞장섰다.



대한민국과 유엔개발계획(UNDP)

제 4 장 인간개발과 UNDP

- 4.1. 가난을 없애자 : 직업훈련을 통한 인간개발
- 4.2. 유리천장 (glass ceiling) 부수기 : 여성권한신장과 UNDP
- 4.3. 지구를 구하자 : UNDP와 환경보호사업



제4장 인간개발과 UNDP

인간개발은 인간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과정이다. 원론적으로 인간의 선택권은 무한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세 가지 본질적인 선택권들은 첫째, 장기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 둘째, 지식을 얻는 것, 그리고 셋째, 적절한 생활수준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다.

UNDP가 옹호하는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SH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SHD는 환경을 파괴하기 보다는 환경을 재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을 주변화하기 보다는 능력을 부여(empower)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

인간개발지수(HDI)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타야 센(Amartya Sen)의 '역량(empowerment)' 개념에 기초했다. 여기서 '역량'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지향·가치 등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기대수명 등도 종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UNDP는 1997년부터 약 180여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HDI순위를 평가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의 국가들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998년 37위, 1999년 30위에 이어 2006-2009에는 26위를 차지했다.

들의 선택과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은 빈곤을 감소하고(pro-poor), 자연 친화적이고(pro-nature), 일자리를 만들어내고(pro-job), 여성을 옹호(pro-women)하는 것이다. 이는 성장을 강조하지만 고용, 환경, 권한위임, 평등과 함께하는 성장을 강조한다.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은 개발협력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통합된 개념이다(Office of Evaluation and Strategic Planning, UNDP 1995).

대한민국에서 UNDP의 사업들은 첫째, 빈곤계층과 장애인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둘째, 여성관련 이슈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리고 셋째,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몸소 실천하였다.

(1) 빈곤 퇴치

빈곤 퇴치는 UNDP의 중요한 의제이다. UNDP는 보조금을 통해 빈곤을 완화시키는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가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강조해 왔다. UNDP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다. UNDP가 지원한 다양한 직업훈련사업들이 빈곤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2) 여성권의

전통적인 한국사회는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거의 주지 않는 유교 사상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 산업화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다소 향상되었지만, 양성 불평등은 여전히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주요 문제점들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의 양성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UNDP는 여성조직들이 설계한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을 지원했다. UNDP는 한국의 다양한 성(gender) 관련 법안과 정책들이 소수의 엘리트 여성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였다. 여성관련 법안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UNDP는 비정부 기구들과 민중 여성조직들을 촉진함으로써 광범위한 한국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원조를 제공했다.

(3) 환경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래로 고속 성장에만 몰입한 결과 심각한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일찍이 UNDP는 환경문제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 속에서 보았지만, 한국사회에서 환경은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치부하였다. 따라서 UNDP는 정부관료들이 환경정책과 환경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사업들을 지원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UNDP는 시민사회단체, NGO,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격려했다.

4.1. 가난을 없애자 : 직업훈련을 통한 인간개발

4.1.1.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 : 산업화를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6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선(先)산업화를 통한 경제성공을 사회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많은 자원과 외국자금을 현대식 공장의 설립에 투입하였지만 이러한 선진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간자본(human capital)이 결여되어 있었다. 정부의 요구를 인지한 UNDP는 전국 방방곡곡에 산업화 역군의 배출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도왔다.

1) 직업훈련원의 설립과 운영

1960년대 말부터 실시된 직업훈련사업의 목적은 산업노동자를 훈련하고 그들에게 최신식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68년 UNDP와 정부는 중앙직업훈련원(Central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을 설립하였다(ROK/68/526). 오늘날 노동부의 전신인 노동청(Office of Labor Affairs)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의 주요 활동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중앙직업훈련원은 (1) 지도자 훈련센터 (2) 예비공공직업훈련소(pilot public vocational training center) (3) 공장 내 훈련 프로그램(in-plant training) (4) 교역검사시스템(trade testing system) (5)교재 준비를 위한 기술사무소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중앙직업훈련원의 사업은 UNDP 제1차 국가사업(1972-76) 동안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971년 UNDP와 ILO(국제노동기구)는 중앙직업훈련원의 활동을 평가한 후 이 사업모델에 매우 만족하여 한 차원 더 진보된 제2단계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단계 중앙직업훈련원 사업(ROK/72/008)은 산업 전자(industrial electronics)와 금형(die making) 부문의 기술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기획과 훈련교재 개발을 위해 특별연구원들에게 해외 훈련을 제공하였다.

2) 농촌직업준비훈련원

대한민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자 정부는 농업지역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제3차 5개년 계획에 추가했다. 1970년대 초 25%의 초등(국민)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설사 중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와 UNDP는 수학을 중단한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직업준비 및 훈련사업(Rural Vocational Preparation and Training, ROK/73/005)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정부는 1970-72년 사이에 UNICEF, UNDP, ILO의 지원으로 6개의 농촌직업훈련센터(Rural Vocational Training Centers)를 설립했다. 그리고 6개 센터들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원조가 UNDP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사업에 UNDP는 81천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24인/월(24man/months)의 전문인력을 제공하였다. 한국 정부 또한 일방적으로 UNDP의 투입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당시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 139백만 원의 기여를 통해서 3,792인/월(man/months)에 해당하는 기술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농촌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UNDP와 정부의 사업은 새마을운동과 결합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기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자본과 인재를 도시에 집중시킨다. 그 결과 농촌지역은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서구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나타났고 오늘날 경제발전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서조차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도시와 농촌간의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득기회를 잃은 농촌의 젊은 계층은 폭력적 수단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UNDP의 청년 지도자를 포함한 운동지도자의 훈련은 청년들의 참가를 장려하고 지역사업의 관리기술을 개선하는 분명한 공헌을 하였다.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는 UNDP에 청년지도자 훈련사업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ROK/77/002), UNDP는 1977-81년 약 156천 달러를 인천 유네스코 청년센터의 사업에 투입하였다.

4.1.2. 두 번째 기회 :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산업재해는 산업화의 부작용 중 하나이며 국가 및 기업은 재해를 당한 노동력의 재활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1960-70년대 한국은 안전불감증으로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장애도 인도주의, 의료, 사회, 교육, 직업, 경제 등 복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는 공통적으로 소득의 감소와 손실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의 최종결과물은 항상 동일하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2등 시민으로 간주된다. 제대로 된 직업재활과 적절한 고용정책 없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공공원조(복지, 기부 등) 또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의존한 상태로 남게 된다.

1970년대만 해도 산업재해는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정부, 사용자, 노동자는 엄청난 갈등을 겪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의 장애인 직업재활 아시아지역 고문에게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사업을 검토하고 서비스의 개선과 확장을 위한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Industrially Disabled, ROK/74/004).

ILO 지역고문은 노동부가 인천에 새로운 산업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왔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직업재활을 다루는 다른 부서들도 지원했다. 산업재활센터(IRC)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첫 번째 기구였다. 산업재활센터는 의료 및 직업재활을 결합했고 그 특별기능은 부상을 입은 숙련공들을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에 '불구' 및 '장애노동자'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작업장에서도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것을 장려하는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숙련된 노동력을 산업재해로 유출할 여유가 없던 개발시대에 산업재활센터의 필요성은 명백한 것이었다. 정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집중적 교육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예방적 수단들을 시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은 흔하게 일어났고 산업재활센터의 장기적 필요는 피할 수 없었다. 산업재활센터



는 연간 4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이들 중 절반 정도만이 의료재활에서 직업재활을 거쳐 재고용 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업재활센터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재활 후 장애인의 실질적 재고용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1990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KEPAD: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을 설립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993-98년 UNDP와 공동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선진국의 다양한 고용촉진기술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개발하였다. 정부 역시 장애인의 재고용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의무 할당 비율에 충실한 기업들에게 재무적 원조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는 사업기간에 걸쳐 대한민국의 10,000명의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했다(Employment Promo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OK/93/011).

4.2. 유리천장(glass ceiling) 부수기 : 여성권한신장과 UNDP

유교에 깊은 뿌리를 둔 한국의 전통사회는 많은 미덕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정치, 사회,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는 데는 인색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깊이 구조화된 성적 불평등을 야기했다. 오늘날의 산업화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불평등은 여전히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사실 기대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등과 같은 지표에서 한국 여성들의 지위는 국가의 인간개발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 정치적

활동의 영역에서는 한국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 아래 <표 4.1>과 <그림 4.1>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여성개발지수(GDI)는 1997년 전세계 35위에서 2009년에는 25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인간개발지수(HDI) 역시 1997년 31위에서 2009년 26위로 유사하게 상승하였다. GDI와 HDI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기대수명, 문자해독률 등의 사회적 지표에서는 남성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GEM과 GDI

UNDP가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서 개발한 4대 지수는 인간개발지수(HDI), 인간빈곤지수(HPI), 여성개발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이다. 이들 지수 중에서 여성에 관계되는 것은 GDI와 GEM이다.

여성개발지수(GDI: Gender Development Index)는 평균수명, 교육, 소득수준 등의 분야에서 남녀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 지수이다.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여성의 정치, 경제적 권한부여의 정도를 강조하는 지수인데, GEM은 국회의원 여성비율, 입법,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남녀소득비의 지표로 구성된다.

1995년 첫 발표 시 한국의 HDI는 31위, GDI는 163개국 중 37위로 인간개발에 있어서 남녀간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두 지수가 똑같이 30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GEM에서는 1995년 102개국 중 83위, 2003년 66개국 중 63위를 차지함으로써 이 분야에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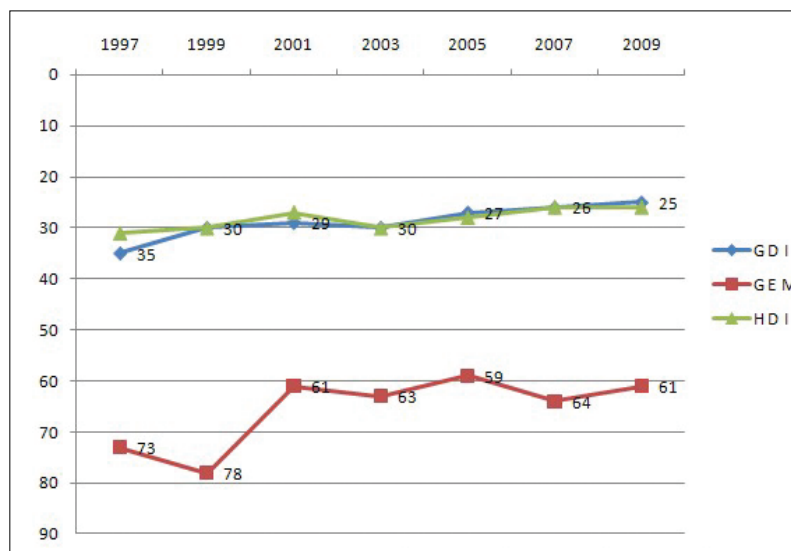
그러나, 여성의 정치 및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GEM)에서 한국은 1997년 73위 2009년에는 61위를 차지하여, 국제적 순위에서는 약간의 상승을 보였지만 GEM과 GDI의 격차는 아직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고위 전문직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리장벽(glass ceiling)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표 4-1〉 한국의 GDI / GEM / HDI 순위변화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GDI (여성개발)	35	30	29	30	27	26	25
HDI (인간개발)	31	30	27	30	28	26	26
GEM (여성권익)	73	78	61	63	59	64	61

한국의 여성권의 신장은 국가보다는 여성운동단체가 앞장섰다. 이들은 성 관련 쟁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여성운동단체들의 적극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 불균형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은 방법의 과격성, 조직의 폐쇄성, 홍보의 부족 등으로 '주류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따라서, 국제적 연대 등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1990년대 여성조직들은 UNDP와 제휴하여 여성권의 신장의 공동전선을 형성하였다.

〈그림 4-1〉 한국의 GDI, GEM, HDI의 상대적 위치



초기 UNDP의 여성관련 프로젝트는 여성문제를 경제와 복지의 차원에서만 이해하였기 때문에 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예를 들어, UNDP와 ILO는 1987년 '저소득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사업(Training for Low-Income Women, ROK/87/011)'을 전개하였는데 이 사업은 소득증대와 직업훈련의 관점에서 여성을 바라보았다.

4.2.1. 성 평등을 위한 법률 변화

한국사회에서의 성적 장벽을 부수기 위해 여성운동조직은 가족법 등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의 개정을 위해 투쟁하였다. 동시에 여성의 권익을 대표하기 위해 여성 정치인을 선출하려는 캠페인이 1990년대에 조직되었다. 오늘날 한국 여성운동은 성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계몽과 홍보의 파트너로 UNDP와 같은 국제기구를 선택하였다.

대한민국의 성 관련 정책과 법률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가정 중 하나는 여성의 권리, 의무, 책임은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그들의 지위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국가정책에서 여성은 일차적으로 어머니와 부인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증가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성 관련 정책에 스며들어 있었다.

UNDP는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국가정책과 법률제정에 반영된 성적 평등 개념들을 철저히 검토하였다. 현재 여성부의 전신인 정부장관(제2)실이 수행한 이 사업은 명백한 개념정의와 정책제안을 통해 성 평등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개발하는 기초를 닦았다. 이 사업은 UNDP가 주창하는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WID : Women In Development)에 부합하였고, 여성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NGO, 대중 여성조직 및 정책결정자들을 지원하였다.



UNDP는 여성의 불평등을 알리는 국내외적 홍보활동을 통해서 여성권의 신장에 노력하였다. 1993년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여성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여성에 대한 전국회의를 개최하였고(Annual National Conference on Women, ROK/93/004), 이듬 해에는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에 한국의 NGO가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였다(Support NGO Preparatory Act-Beijing World Conference, ROK/94/004). 또한 여성 노동조합원에게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훈련하는 사업(Legal Literacy Training Trade Union Women, ROK/94/006)을 통해 노동계의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힘썼다.

4.2.2. 국경을 넘어 : 국제사회의 결속노력

전통적으로 외교, 안보, 조약 등 국제관계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한국의 여성조직은 여성의 국제활동과 훈련에 적은 관심을 가져왔다. 여성관련 이슈는 단지 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협동을 요구한다.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생각 및 경험을 공유하며, 점점 더 증가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일부 여성조직들과 여성학자들은 이미 국제적인 활동이 활발했지만, 대다수 전문직 여성들의 국제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94년 UNDP는 전문직 여성들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여성운동가들간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향상시키려 하였다(Training Program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y For Professional Women, ROK/94/003).

훈련은 여성의 국제활동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영역의 지도자들이 여성운동의 국제적인 흐름을 터득하고, 그것을 한국의 여성 집단에게 보

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여성개발에 관한 국제적 이슈에 관심이 증대되었다. 상기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UNDP는 1995년 9월 UN창립 50주년을 맞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여성회의에 참가한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에게 재무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Support for NGO Preparatory Activities for Beijing World Conference On Women, ROK/94/004).

베이징 회의는 유엔헌장에 천명된 남녀 평등권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 및 기타 목표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인권문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과 발전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특히 여성차별 철폐협약과 아동 권리협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여성조직에게 전 세계의 다양한 여성지도자와 함께 철학, 전략,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2.3.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빈곤철폐의 전략으로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for Development)가 논의되고 있다. 국제원조가 아무리 활성화





되더라도 성 불평등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개발의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국제사회의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비롯한 선진 공여국들은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부여를 개발원조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선진 공여국에 비해 개발원조의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은 국제원조를 경제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뿐, 성 평등이나 인권과 같은 인간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접근은 아직도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UNDP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과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Mainstreaming Gender Perspective in ODA Policies and Programmes, ROK/07/005).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현황을 분석하였고, 여성의 성 주류화 이슈와 같은 개발원조사업은 그 영향이 하나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는 크로스커팅(cross-cutting)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한국사회에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 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예를 들어, 공공화장실은 남녀가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화장실 이용실태를 보면, 여성은 신체적 특성과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평균시간이 남성에 비해 훨씬 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은 성 중립적 예산이 반드시 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특성을 예산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인지 예산 실행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정부의 관료들은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지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UNDP는 성인지 예산 실행을 위한 역량개발 사업을 전개하였다(Capacity Building for Implementing Gender Responsive Budget in Korea, ROK/07/008).

4.3. 지구를 구하자 : UNDP와 환경보호사업

한국은 금수강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려하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였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대부분의 자연환경이 개발되고 훼손되는 상처를 입었다. 한국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우려는 1970년대 초반에 표면화되었다. 첫 단계에서 정부는 경험부족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마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UNDP는 정부가 기술, 재무, 윤리적 지원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한 헤아릴 수 없는 원조와 1970년대 이후로 정부가 그 환경을 통제하는데 관련한 경험을 제공했다.

4.3.1. 첫 번째 경고, 첫 번째 대응

한국 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우려는 1970년대 초반에 표면화되었다. 당시 정부는 경험부족과 개발우선정책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마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UNDP는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이 가져올 복합적 문제를 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환경분야에 대한 UNDP의 지원은 크게 1) 전문인력 양성, 2) 환경분야의 데이터 구축, 3) 모니터링체계 구축의 3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1)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UNDP는 미래 환경분야에서 일할 정부관료들이 선진국의 경험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했다. 1974년 UNDP는 환경개선 연수사업(Environmental Improvement Fellowships, ROK/74/001)을 통해 3개의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일할 인재에 대한 2년간의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한국 도시조경 분야의 설립과 지도에 있어 핵심 멤버가 되었다. 정부는 또한 환경보호분야의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단기훈련을 요청했고, UNDP는 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2) 데이터 구축 사업

1974년 정부는 대기오염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오염을 제한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분포와 오염의 내용물에 대한 타당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한국의 대기오염 측정기기들은 정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을 할 만한 데이터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UNDP의 대기오염측정사업(Air Pollution Monitoring, ROK/74/005)은 전국에 분포한 대기오염측정기관들의 역량을 제고시켜 신뢰할 수 있는 측정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 통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3) 모니터링 체계 수립

1970년대 한국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1979년 서울의 이산화황(SO2) 노출은 기준치를 400% 이상 초과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수질 오염 또한 걱정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서울 한강의 수질은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였고, 한강에서 포획된 민물고기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비소 함유량을 나타냈다. 급기야 한강에서는 변형된 물고기가 발견되었고, 그 변형의 원인으로 중금속과 다른 독성물질 오염이 지목되었다. 오염문제는 비단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낙동강 상류에서

도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발견되었고 1970년대 후반 울산, 마산, 진해 바다 연안에서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정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1980년에 환경청(Office of Environment)을 새롭게 설립하였다. 그러나 기구가 설립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환경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 국가를 통틀어 934명이 환경오염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근무경험이 짧고 오염관리에 관한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전국적 환경오염 통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1,600명의 숙련된 인력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게다가, 환경오염 통제분야의 기존 직원들의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최신화할 필요가 있었다. 부족한 환경관리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UNDP와 WHO(세계보건기구)는 국립환경연구원⁵⁾(NEPI: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stitute)의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소위 '환경오염 통제인력의 개발과 훈련(Development And Training of Manpower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ROK/82/007)'이라는 제하에 실시된 이 사업의 목적은 환경오염 통제를 위한 기술관리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과 정책수행에 관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국립환경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해 오염조사, 표본분석, 자료처리, 오염통제시설의 운영 및 유지, 그리고 대기, 수질, 토양오염 통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선진기술을 전수받았다.

4.3.2. 체계적 접근 : 평가 및 네트워킹

산업화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경 이슈는 보다 중요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점점 더 큰 목소리를

5) 2005년 7월 1일자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음.



내는 NGO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를 느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문제에 관한 총체론적 접근을 위해 정부와 정부 외곽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다.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반응적 접근(reactive approach)과 예방적 접근(proactive approach)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반응적 접근은 환경문제나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야기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방적 접근은 환경문제나 사고발생 전에 행동을 취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화학물질의 위험을 그 실제적 사용이나 제조 전에 적절히 평가하는 것은 예방적 접근의 사례라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 한국정부는 반응적 접근에 친숙했고 따라서 환경오염물질의 관리와 조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오염의 원인 예방이 오염의 제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정부는 화학 및 독성물질통제법안을 제정했다.

문제는 정부가 상기 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화학 독성 폐기물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평가과정(risk assessment process)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험의 평가는 독물학과 환경 데이터의 해석에 기초한다. 따라서 위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선 화학중독성과 노출에 대한 전국적 데이터가 산출되어야 한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선진국에서 산출된 데이터에 의존해 왔으며 맹목적으로 선진국의 관리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따라서, '환경적 독소위험 평가시스템 사업(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Toxicological Risk Assessment System, ROK/98/013)'은 국내에서 생산된 중독성 관련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에 기초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잠재적 한국적 데이터에 기초한

환경독성위험평가(ETRA)과정이 개발되었다.

정보유통망과 네트워킹 능력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며, 잘 개발된 네트워킹능력은 환경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선진국에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교한 환경정보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환경정보 네트워크시스템사업(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Network System (KEINS), ROK/93/016)’은 환경기술 데이터에 대한 시민단체-기업-정부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국내의 환경정보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환경네트워크의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4.3.3. 환경과 개발의 조화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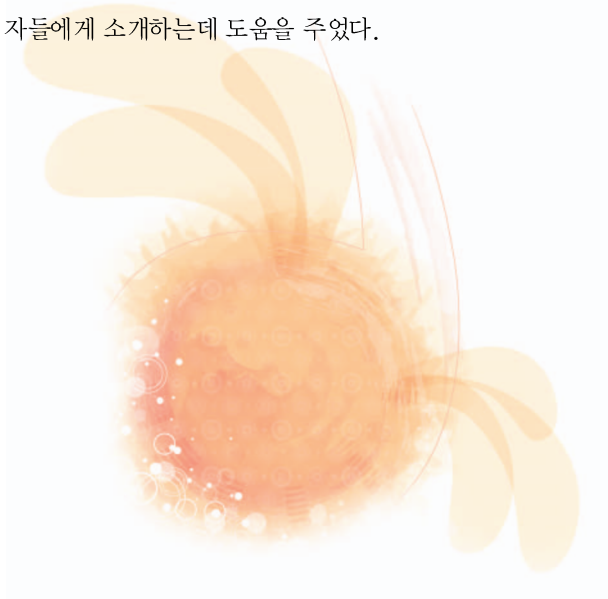
1990년대 UNDP가 표명한 인간개발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Sustainable Human Development)’로 이는 인간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UNDP는 환경이 소수의 정부정책 결정론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NGO, 연구기관,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UNDP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과 ‘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SDN)’의 개념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네트워크(SDN)’는 1989년 브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가 내놓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기원한다.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후 UNDP는 Capacity 21을 내놓았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끌기 위한 경제, 사회, 환경적 목표를 담은 광범위한 행동계획이다.



Capacity 21은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SDN)'의 개념을 포함한다. SDN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칭한다. 1993년 UNDP는 지속가능한 개발네트워크 개념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NGO의 활동을 지원하였다(NGO Activities Promoting SDN Concept, ROK/93/018).

동시에 UNDP는 환경에 대한 선언을 넘어 생태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지원하였다. 1996년 실시된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한 생태조사 사업은 보존과 개발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장기적 관점에 입각하여 실시되었다(Detailed Study & Proposal for ESSD in Northern Kyunggi Province, ROK/96/007). 이 사업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 통일 후 휴전선 일대에 대한 무모한 개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을 장려하기 위해 이 사업은 생태시스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당시로서는 생소한 ESSD 개념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소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대한민국과 유엔개발계획(UNDP)

제 5 장 국제개발과 UNDP

5.1.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5.2. TCDC와 초기국제협력 (1997-2004) :

남남협력을 통한 경험 전수

5.3. MDG 8을 향해서



제5장 국제개발과 UNDP

5.1.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2000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세계의 정상들은 지구촌 빈곤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겠다는 야심 찬 선언을 하였다. 참가국들은 세계의 빈곤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5년까지 목표를 실행해 나가는 데 동의했다. 소위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불리게 된 이 선언은 아래와 같은 8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 ① 극단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 ②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 ③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 ④ 유아 사망률 감소
- ⑤ 임산부 건강 개선
- ⑥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 ⑦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 ⑧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MDGs의 8대 목표들이 이미 대한민국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UNDP와 대한민국의 협력관계 중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협력기간 동안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이다. 1960년대 UNDP가 처음 한반도에 사무소를 열었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저발전국(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분류되었고, 새천년개발목표의 1번 과제(이후, MDG 1)조차도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국가였다.

기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던 나라가 개발도상국을 거쳐 1993년을 기점으로 UNDP의 순공여국(NCC: Net Contributor Country)이 되었으며, 이듬해 2009년 11월에는 원조 선진국 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특히 한국이 MDG 8(개발을 위한 협력)의 수원(recipient)에서 공여(donor)라는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는 현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이 UNDP와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것들을 돌려주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부터 시작된 후속사업부터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6차 국가사업(UNDP에서는 이를 후속사업으로 보고 있음) 기간 추진된 사업들은 남남협력의 일환인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제7차 국가사업이자 마지막 국가사업기간(2005-2009)은 대한민국이 성숙한 공여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점검기간으로써, 이 기간은 남-남 협력의 단계를 넘어 선진국-개도국 협력인 남-북협력과 MDG 8을 고려하여 사업이 설계되었다.

5.2. TCDC와 초기 국제협력(1997-2004): 남남협력을 통한 경험 전수

UNDP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협력은 선진국의 기술과 자금을 개발도상



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기술이 상당수 있다. 또한 개도국이 선진국의 기술을 수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 능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적절히 훈련되어 있는 기술인력,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능력, 경영관리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런 요소들은 선진국의 관점에서 종종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기술 능력 향상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UNDP가 강조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간의 기술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은 선진국의 지나치게 ‘진보된’ 기술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적절한’ 기술이 오히려 개발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추진되었다(아래 TCDC의 기원 참고). 대한민국 정부도 개도국 상황에 맞는 현장활용 가능한 기술전달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TCDC를 일찍부터 지지하였다. UNDP 역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훌륭한 중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TCDC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훌륭한 사례가 된다. 개발도상국에 기술이전을 하는 것은 수혜국가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UNDP 한국대표부는 TCDC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TCDC의 기원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이하, TCDC)은 사업의 집행과 관리를 개발도상국들의 기관들이 담당하는 양식을 일컫는다. TCDC를 통해 개도국들은 각자의 경험과 기술역량을 공유하며, 필요하다면 UN 기구 등 외부로부터 자문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TCDC는 비용효과적으로 중장기 개발목적을 지원하는 대표적 남-남 기술협력이다.

전통적인 국제관계가 역사적 식민지 관계에 기반한 수직적 성격의 남-북 교역이라면, 1970년대 등장한 TCDC는 진정한 의미의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직적 교역을 보완할 개도국 간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한다.

1975년 UNDP는 '새로운 차원'에서 기술협력사업의 실행에 있어 NEX(정부집행)와 TCDC 양식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한 것이 TCDC의 기원이라 볼 수 있다. 이후 197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UN 회의에서 TCDC의 개념 및 운영 원칙이 개발되었다. TCDC의 남-남 협력은 남-북 협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의 협력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5.2.1. TCDC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활동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개도국 상황에 맞는 기술전달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TCDC를 일찍부터 지지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신 제조 기술과 다방면에 걸친 기획관리능력을 선정하였다.



❁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위한 선진 직업기술교육과 훈련

1997년 한국기술교육대학(KUT :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이 실행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위한 ‘선진 직업기술교육과 훈련’ 사업은 TCDC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욕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 가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소위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숙련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현장경험이 있는 기술지도자와 실습을 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숙련공의 양성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

신흥공업국(NIE : Newly Industrialized Economy)으로서 대한민국의 직업 기술교육훈련(TVET :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체계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놓여 있었다. 1970년대 한국 정부는 노동집약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TVET를 중학교 과정에서 강조하였고, 1980년대 기술 수준이 제고되자 TVET를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관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기술집약산업에서 활동하는 많은 숙련된 기술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등에서 선발된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TVET 정책과 제도관리에 대한 고급훈련뿐만 아니라 CAD/CAM 분야에 대한 기술교육훈련을 제공하였다(Advanced TVET Programme For The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ROK/97/012). 기술교육대학에서 훈련을 받은 이들은 귀국 후 각자의 나라에서 TVET 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술교육대학은 1단계 사업의 성공에 고무되어 200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제2단계 TVET 사업을 실행하였다. 이 사업은 TCDC 뿐만 아니라 여성과 환경에 대한 고려도 포함시켰다(Phase II, ROK/0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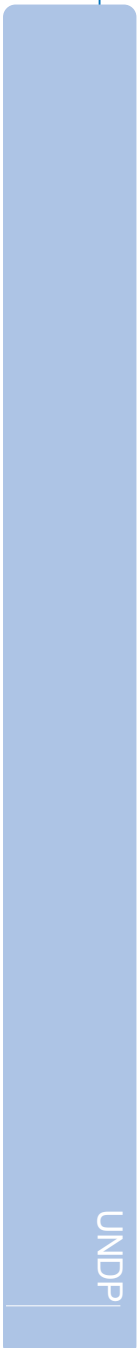
✧ 베트남의 공공보건 능력 향상

빈곤 퇴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는 공공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공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백신의 보급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룬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UNDP는 베트남 보건체계의 능력배양 및 안전한 백신의 투여를 통하여 공중보건과 빈곤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심각한 발병 및 사망 사례를 추적하고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TCDC의 새로운 유형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일본정부가 UNDP에 기탁한 일본 인간자원개발기금(JHRDF: Japanes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자금은 일본 기금이었지만, 사업의 집행과 관리는 한국정부가, 수행은 한국 정부의 기금으로 서울에 세워진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가 담당하였다. 즉, 선진국(일본)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이 형성되었지만, 사업의 수행 및 대상은 한국과 베트남이라는 개발도상국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TCDC 사업의 형태를 띠었던 것이다(Capacity-Building for Creation of Large-Linked Databases for the Medical Evaluation of Vaccine Safety in Developing Countries, ROK/01/001).

5.3. MDG8을 향해서

2000년대 진입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한국은 OECD의 비중 있는 회원국으로 등장하였고, 인간개발보고서에서도 한국을 최상위 국가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남 협력을 강조하는



TCDC 모델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게 국제사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은 선진화된 국가의 입장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시작하였다.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요청에 적극 부응하였다. 아래에서는 향후 국제원조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⁶⁾로 평가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한국해양연구원(KORDI: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의 사업을 소개한다.

남태평양 지역의 연안지질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UNDP 국가사업으로 사모아(Samoa) 섬에 대한 연안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Coastal Geological Mapping of Savai'i Island, Samoa, ROK/05/003). 대부분의 지진은 대륙이나 바다를 받들고 있는 '판'이 서로 만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사모아 제도 주변에는 무려 5개의 판이 맞물려 있다. 또한 사모아 제도 주변은 지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져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경작지 손실 등은 지역주민들의 빈곤화로 이어진다.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5-2007년 3명의 전문가를 사모아 섬에 파견하여 연안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사모아 제도 사바이섬(Savai'i Island)의 해안지형도를 출간하였다. 동시에 사모아 지질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3년 동안 매년 2주간의 단계별 연수를 실시하였다. 위의 사업이

6) '09년 11월에 실시된 UNDP 사업최종평가단(팀장 F.Andic 박사)에 의하여 KIGAM 및 KORDI 사업이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

매우 좋은 반응을 얻자 UNDP는 제2단계 사업으로 이 사업에서 개발된 모형을 남태평양의 국가들에 적용하여 다자간협력사업으로 승화시켰다. 아시아와 남태평양 연안의 지질위험평가(Geohazard Assessment in Asia and South Pacific Region Coasts, ROK/08/005) 사업은 남서태평양과학기구(SOPAC) 회원국들로 확대하여 회원국의 재난감소는 물론 한국 지질자원기술정보의 기술 국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 해양 한국을 향하여: 남미국가들과의 해양 협력

남미를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과 대서양은 생태다양성의 보고이자 수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중요한 경제 원천이다. 하지만 이곳의 해양과 연근해는 쓰나미, 엘니노와 같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이동으로 생태계의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해양정책이 필요하지만 남미지역의 과학자들은 기술 및 설비의 부족으로 장기적 관점의 해양정책을 설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해양연구원(KORDI)은 남미 국가들의 요청으로 과학자들의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을 실행하였다. 남미와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술협력이 라는 이름으로 수행한 이 사업은 해양환경, 해양자원, 해양산업, 해양정책의 4대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ROK and Latin American Region, ROK/07/010).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남미 7개 국가⁷⁾들과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정책포럼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들과 장기적 협력관계를 맺는 포석을 놓았다. 특히, 대한민국과 페루 정부는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해양기술, 기후변화, 통합적 연안관리, 녹색해양기술과 해양에너지, 해양광물과 생물자원의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사업은 앞서 소개한 한국지

7) Belize, Costa Ric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Panama.



질자원연구원의 남태평양 연안지질조사 사업과 더불어 UNDP의 모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업이 공급자 중심(supply-driven)이 아니라 남미 참가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수요 중심(demand-driven)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 양계농가와 팜유(palm oil)산업의 창의적 결합

말레이시아의 양계농가는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정부와 UNDP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서 풍부한 팜(palm) 부산물인 PKC(Palm Kernel Cake)를 생물학적으로 전환시켜 닭 사료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팜 생산업자와 양계업자의 소득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 사업의 결과를 다른 개발도상국, 특히 팜 오일을 주로 생산하는 아프리카로 이전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Bioconversion of By-Products from Palm Industry for Production of Value-Added Materials, ROK/04/002).

❁ 베트남과 튀니지의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뛰어난 정책기획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자연자원, 자본투자, 혹은 훌륭한 인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획력이 없이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경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오늘날 베트남의 경제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베트남은 외국자본의 투자가 활발하고, 국민들이 근면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빠르지만 경제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R&D에 대한 기획과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진단이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와 UNDP의 요청으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베트남 과학기술정책 5개년 계획(2011-2015)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정

책 분야의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과학기술부문을 현장조사하고, 관료들과 라운드테이블 회의 및 공동 워크숍을 통해 베트남의 혁신체계를 진단하였다.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개발 경험에 비추어 베트남에 자문을 제공하였다 (Technical Assistance for 5-year Science and Technology Plan in Vietnam (2011–2015), ROK/07/004).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베트남에서의 정책자문 경험을 이용하여 2008년에는 튀니지에 정책자문을 제공하였다. 특히, 국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지표 구축에 대한 방법론을 전수하였다 (Technical Assist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in the Republic of Tunisia, ROK/08/001).



결론 동지를 떠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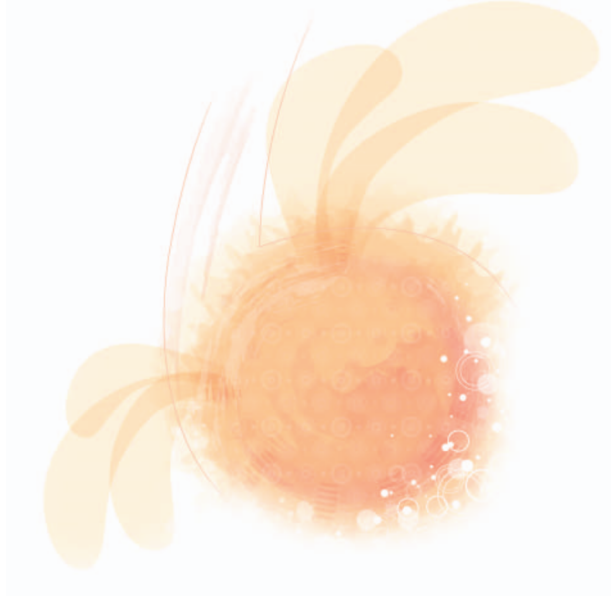
반세기 동안 UNDP와 대한민국이 맺은 경제협력, 인간개발협력, 그리고 국제 개발협력은 한 권의 책과 몇 개의 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형성된 것이 아니다. 둘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동반적 성공사례를 창출하였다. 대한민국은 당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국가도 성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역으로 UNDP는 UN 및 국제원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을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반증하였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UNDP의 46년은 얽히고 설킨 부모와 자식의 변화하는 인생살이에 비유할 수 있다. UNDP와 UN은 대한민국이 식민지로부터 고통스럽게 탄생하는 것을 도왔고, 1960-80년대 대한민국의 청년기에는 부모로서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과 조언을 주었으며, 1990년대에는 외환위기 등의 위기에 도 정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원조 순공여국으로 성장한 이후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활동하는 방식을 알려주었다. 옛그제만 해도 부모의 손을 잡으며 외부세계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어느덧 부모보다 더 건강하고 크게 자란 것이다.

21세기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여국이기 때

문이다. 사실 한국을 제외한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벌써 1세기가 넘게 부자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 국가에는 배고픔과 빈곤이 가져오는 박탈감을 경험한 세대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한 세대가 빈곤과 그것으로부터의 탈출을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게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원조도 제공할 수 있다. 21세기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국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이 책을 마무리한다.





부록 1. UNDP 사업목록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	결핵통제 TUBERCULOSIS CONTROL	
KOR-09	토양비옥화 연구 SOIL FERTILITY AND SOIL RESEARCH	농림부
KOR-10	심해어업훈련센터 DEEP SEA FISHING TRAINING CENTRE	심해어업훈련센터
KOR-13	토양조사 SOIL SURVEY	농림부
ROK-65-515	정밀기기센터 FINE INSTRUMENTS CENTRE	상공부
ROK-66-516	낙동강유역예비조사 PRE-INVESTMENT SURVEY OF THE NAKTONG RIVER BASIN	건설부
KOR-21	중소기업확장서비스 EXTENSION SERVICES DEPT. IN THE MEDIUM INDUSTRY	
ROK-67-522.2	경사지개발 UPLANDS DEVELOPMENT AND WATERSHED MANAGEMENT	농림부
ROK-67-523	산림조사 FORESTRY SURVEY AND DEVELOPMENT	농림부
ROK-68-001	도시 및 지역계획 Urban and Regional Planning	건설부
ROK-68-004	영양프로그램 APPLIED NUTRITION PROGRAMME	
ROK-68-006	과학교육 SCIENCE EDUCATION PROJECT	
ROK-68-524	관정식관개 TUBWELL IRRIGATION PROJECT	농림부
ROK-68-525	한국연근해어업기술훈련 COASTAL FISHING TRAINING CENTRE- SHIPJACK FISHING	농림부
ROK-68-526	중앙직업훈련원 CENTRAL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PHASE II)	노동청
ROK-69-009	가다랭이 일본조 어업훈련 Shipjack	농림부
ROK-69-016	산업개발 INDUSTRIAL DEVELOPMENT	
ROK-69	어업자문서비스 FISHERY ADVISORY SERVICES	수산청

부 록 1. UNDP 사업목록

사업번호	사 업 명	사업수행기관
ROK-69-529	지역계획 REGIONAL PHYSICAL PLANNING	건 설 부
ROK-70-002	유압기계연수 OIL HYDRAULICS SYSTEMS FELLOWSHIP	
ROK-70-005	사회사업훈련 SOCIAL WORK TRAINING	
ROK-70-006	상수도사업훈련 FELLOWSHIP IN WATER WORKS	
ROK-70-008	도금 및 금속마감처리연수 ELECTROPLATING & METAL FINISHING TRAINING & CONSUL	
ROK-70-010	발전행정센터 ADVANCED CENTER FOR ADMINSTRATIVE DEVELOPMENT	서 울 대
ROK-70-011	토양조사 SOIL AND SURVEY AND FERTILITY PROJECT	농 립 부
ROK-71-003	석유화학산업 PETROCHEMICAL INDUSTRY	
ROK-71-004	철강 및 제철산업 IRON AND STEELMAKING INDUSTRY	
ROK-71-009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 NAT'L NUTRITION PROG SCHOOL FEEDING & NUTRITION ED	
ROK-71-010	전자통신운영 TELECOMMUNICATION OPERATIONS	
ROK-71-511	식품연구소 FOOD PROCESSING CENTRE	농 립 부
ROK-71-532	작물보호연구훈련 STRENGTHENING PLANT PROTECTION RESEARCH & TRAINING	농 립 부
ROK-71-533 OR 534	질병 및 해충관리 DISEASE AND INSECT PEST CONTROL ON PLANTS	농 진 청
ROK-71-535	방사선 가공처리 시범시설 RADIATION PROCESSING DEMONSTRATION FACILITIES	원 자 력 청
ROK-71-537	항만개발조사 PORT DEVELOPMENT STUDY	건 설 부
ROK-71-538	임업연수원 FORESTRY TRAINING CENTRE	임 업 연 수 원
ROK-71-539	중소기업지도 EXTENSION SERVICES DEPT. MEDIUM IND. BANK PHASE II	상 공 부
ROK-71-540	지역계획 Regional Plan	건 설 부

UNDP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71-541	지역경제계획 ASSISTANCE IN THE DEVELOPMENTS OF REGIONAL PLANS	
ROK-71-541	기상연구소 METEOROLOGIC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관 상 대
ROK-72-00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KOREA SCIENTIFIC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RE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현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ROK-72-003	농경수질관리 NATIONAL SEMINAR ON WATER MANAGEMENT AT FARM LEVEL	정 부
ROK-72-004	정밀기기센터 II FINE INSTRUMENTS CENTRE PHASE II	상 공 부
ROK-72-005	낙동강 삼각주유역연구 NAKTONG RIVER BASIN DELTA AND TRIBUTARY STUDIES	
ROK-72-024	수출품 산업표준 및 품질관리 INDUSTRIAL STANDARDS & QUALITY CONTROL FOR EXPORTS-KOREA	
ROK-72-006	낙동강유역조사 NAKTONG RIVER BASIN DELTA STUDIES	건 설 부
ROK-72-001	한국정보처리센터의 전산화 OPT. COMPUTERIZATION OF INFO. HANDLING REL. ACT. KR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ROK-72-001	과학기술정보기기 EQUIP. ASSIST. NECESSARY FOR SCIENTIFIC & TECH. INFO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ROK-72-008	중앙직업훈련원 II CENTRAL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PHASE II	노 동 청
ROK-72-009	식품연구소 II FOOD PROCESSING CENTRE PHASE II	농 립 부
ROK-72-021	호텔학교 ESTABLISHMENT OF HOTEL MANAGEMENT SCHOOL	상 공 부
ROK-72-023	생산물 적응화 PILOT PROJECT ON PRODUCT ADAPTION	상 공 부
ROK-72-025	수출포장센터 STRENGTHENING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RE	상 공 부
ROK-72-026	조선연구소 SHIPBUILDING INDUSTRY TECHNICAL SERVICES	상 공 부
ROK-72-027	해양과학기술연구소 KOREAN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과 기 처
ROK-72-028	한국동남부지역의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항공물리탐사 AIRBOURNE GEOPHY & GROUND SURVEY OF SELECTED AREAS	지 질 조 사 서
ROK-72-030	산업컨설팅 인턴십 INTERNSHIPS WITH INDUSTRIAL CONSULTING FIRMS	과 기 처

사업번호	사 업 명	사업수행기관
R0K-72-032	리더십과 조직혁신세미나 SEMINAR ON LEADERSHIP & ORGANIZATIONAL INNOVATION	경 제 기 획 원
R0K-72-034	기술촉진 PROMOTION OF TECHNOLOGY	과 기 처
R0K-72-035	쌀 품종미량영양소연구 MICRO-NUTRENT STUDIES ON THE IR-667 RICE VARIETY	과 기 처
R0K-73-005	농촌직업훈련 RURAL VOCATIONAL PREPARATION AND TRAINING	노 동 청
R0K-73-008	장기산림개발사업 LONG-RANGE FORESTRY DEVELOPMENT PLAN	내무부 산림청
R0K-73-009	국가복지연금계획 NATIONAL WELFARE PENSION SCHEME	보 건 사 회 부
R0K-74-001	조경훈련 ENVIRONMENTAL IMPROVEMENT FELLOWSHIPS	동 자 부
R0K-74-003	노동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LABOUR SCIENCE	노동 과학 (연)
R0K-74-004	산업재해 직업재활 VOCATIONAL REHABILITATION INDUSTRIALLY DISABLED	보 건 사 회 부
R0K-74-005	대기오염 모니터링 AIR POLLUTION MONITORING	보 건 사 회 부
R0K-74-006	KAIST/MERI MECH. ENG. RESEARCH INST KIST IND. COOP. PROD.PROG	K A I S T
R0K-75-001	임업연수원 FORESTRY TRAINING INSTITUTE	임 업 연 수 원
R0K-75-003	열관리연구소 KOREA INSTITUTE OF ENERGY CONSERVATION	종합 에너지(연)
R0K-75-005	옥외수리시험 OUTDOOR HYDRAULICS LABORATORY	농 업 진 흥 공 사
R0K-75-006	배수개선 DRAINAGE IMPROVEMENT	농 업 진 흥 공 사
R0K-75-009	태백지역개발 TAEBAEG REGIONAL DEVELOPMENT PLAN	국토개발연구원
R0K-75-010	선박용접구조 SHIPBUILDING WELDING & STEEL FABRICATION	선 박 (연)
R0K-75-011	하수처리시설 예비조사 PREFEASIBILITY STUDY FOR SEWERAGE WASTE DISPOSAL	보 건 사 회 부
R0K-75-014	개발계획 ASSISTANCE IN DEVELOPMENT PLANNING	경 제 기 획 원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75-015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KORSTIC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ROK-75-016	한국증권금융 TECH. ASSIST. FOR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한국증권금융공사
ROK-75-017	낙동강 하구지역 및 지류 유역조사 II Nakdong Deltas/Tributary	건설부
ROK-75-019	반도체 재료 개발 SEMICONDUCTOR MATERIALS TECHNOLOGY	K I S T
ROK-75-020	통신기술연구소 KOREA ELECTROTECHNOLOGY & TELECOM RESEARCH INST.	통신 기술 (연)
ROK-75-022	국제 경영원 INTERNATIONAL MANAGEMENT INSTITUTE	전 경 련
ROK-77-002	청소년지도자훈련 YOUTH LEADER TRAINING	UNESCO 한국위원회
ROK-77-004	신뢰성시험센터 RELIABILITY AND ENVIRONMENTAL TEST CENTER	기계 금속 (연)
ROK-77-005	환경오염 관련 전문가훈련 DEV & TRAINING OF MANPOWER-ENVIRON. POLLUTION	국립환경보호호원
ROK-77-006	선박기계 SHIPBOARD MACHINERY	선 박 (연)
ROK-77-007	공업부문조정관 COORDINATING INDUSTRIAL ADVISER	과 기 처
ROK-77-008	공역관리 INTEGRATION OF NATIONAL AIRSPACE SYSTEM	교 통 부
ROK-77-009	과학은행자료 SCIENTIFIC DATA BANK	과 기 처
ROK-77-011	전자기술연구소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KIET)	전자 기술 (연)
ROK-78-001	에너지정책연구 ENERGY POLICY STUDY	동 자 부
ROK-78-002	5차 계획지원 ASSISTANCE IN DEVELOPMENT PLANNING	경 제 기 획 원
ROK-78-003	기술개발회전기금 TECHNOLOGY DEVELOPMENT	과 기 처
ROK-78-005	TCDC DELEGATION CONSULTANT	과 기 처
ROK-78-007	농산물유통구조개선 AGRICULTURAL MARKETING MASTER PLAN	농 수 산 부

부 록 1. UNDP 사업목록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78-008	디자인포장센터 II KOREA DESIGN & PACKAGING CENTRE, PHASE II	디자인 포장센터
ROK-78-009	식품연구소 III FOOD PROCESSING CENTRE PHASE III	식품 (연)
ROK-78-010	열관리연구소 II KOREA INSTITUTE FOR ENERGY & RESOURCES	종합 에너지 (연)
ROK-79-001	열 병합 및 지역난방 DIST. HEATING & COMBINED HEAT & POWER GENERATION SYS	종합 에너지 (연)
ROK-79-002	조경훈련 II ENVIRONMENTAL IMPROVEMENT FELLOWSHIP	등 자 부
ROK-79-003	태백지역개발 TAEBAEK REGIONAL DEVELOPMENT PLAN	국토개발연구원
ROK-79-T01	국립과학박물관 개선 PROG FOR THE IMPROVEMT OF NATIONAL SCIECE MUSEUM	국립과학박물관
ROK-80-001	특허청 현대화 MODERN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SYSTEM	특 허 청
ROK-80-002	해양개발연구소 II KOREA OCEAN RESEARCH & DEV. INST, PHASE II	해 양 (연)
ROK-80-003	종합훈련 GENERAL FELLOWSHIP	과 기 처
ROK-82-001	임업연수원 II FORESTRY TRAINING INSTITUTE, PHASE II	임 업 연 수 원
ROK-82-002	구조조정정책 관련 연구 STUDIES FOR STRUCTUAL ADJUSTMENT- KOREAN ECONOMY	경 제 기 획 원
ROK-82-003	옥외수리시험 TECHNICAL ASSIST-DEV OF THE HYDRAULIC LAB- BANWEOOL	농 업 진 흥 공 사
ROK-82-004	특허청현대화 II MODERNIZATION-INDUSTRIAL PROPERTY SYSTEM, PHASE II	특 허 청
ROK-82-005	공기업 성과 분석 DEV. OF A PUBLIC ENTERPRISE PERFORMACE INFO SYSTEM	한국개발연구원
ROK-82-006	발전행정센터 II ADVANCED CENTRE FOR ADMINSTRATIVE DEVELOPMENT, PHASE II	서 울 대
ROK-82-007	공해방지훈련 DEVELOPMENT AND TRAINING OF MANPOWER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국립환경연구소
ROK-82-010	해양기기실 확충 KORDI INSTRUMENTATION CENTRE: EXPANSION PROGRAMME	해 양 (연)
ROK-82-011	해양연구능력 확충 STRENGTHENING OF KORDI'S TECHNICAL CAPABILITY	해 양 (연)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82-012	가축위생연구 STRENGTHENING OF VETERINARY SERVICES	농림수산부
ROK-82-013	용재림 경영 PRODUCTIVE FOREST RESOURCE MANAGEMENT	산림연구원
ROK-82-014	지하탐수개발 GROUNDWATER RESOURCES SURVEYS	동력자원(연)
ROK-82-015	농작물재해보험 CROP INSURANCE TRAINING	농림수산부
ROK-82-016	기술개발(주) 지원 KOREA TECH. DEV. CORP. INST. DEVELOPMENT	기술개발(주)
ROK-82-017	통계개선 STATISTICAL IMPROVEMENT & DEVELOPMENT	경제기획원
ROK-82-018	에너지정책 TRAINING ENERGY POLICY	동력자원부
ROK-82-019	신 식품 개발 DEVELOPMENT OF NEW FOOD RESOURCES & TECHNOLOGY	농림수산부
ROK-82-020	선박제조기술 SHIP PRODUCTION TECHNOLOGY	
ROK-82-021	기상연구소 강화 PROG-STRENGTHENING METEOROLOGICAL RESEARCH ACT.	기상연구소
ROK-82-022	노동과학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LABOUR SCIENCE	노동부
ROK-82-023	민간항공훈련 CIVIL AVIATION TRAINING CENTRE	민간항공훈련원
ROK-82-024	과학박물관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SCIENCE MUSEUM	과기처
ROK-82-025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CENTRE	디자인포장센터
ROK-82-026	기계공학의 컴퓨터 이용 MECH ENGINEERING COMPUTER APPLICATION (MEIA) PROG	K A I S T
ROK-82-027	섬유염색가공 TEXTILE DYEING & FINISHING INDUSTRY SERVICE CENTRE	화학(연)
ROK-82-028	화학물질 안정성 연구 TOXICOLOGY RESEARCH LABORATORY	화학(연)
ROK-82-029	저질탄 활용 연구 LOW GRADE COAL UTILIZATION & PROPERT ANALYSIS	동력자원(연)
ROK-82-030	중환표면처리 SURFACE TREATMENT CENTRE	기계(연)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82-031	수치제어센터 NUMERICAL CONTROL CENTRE	기 계 (연)
ROK-82-032	방사선편폐기물처리 및 관리 STUDIES ON RADIOACTIVE WASTE TREATMENT & MANAGEMENT	원 자 력 연 구 원
ROK-82-033	에너지 절약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KEMCO)	에너지 관리공단
ROK-82-034	중소기업기술지도 EXTENSION SERVICES FOR SMALL AND MEDIUM INDUSTRIES	중소기업진흥공단
ROK-82-035	5차 계획 수정작업 지원 INTEGRATED DEVELOPMENT PLANNING	경 제 기 획 원
ROK-82-W01	저소득 청년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FOR YOUTH OF THE LOWER INCOME	Y W C A
ROK-84-001	국가계획평가 COUNTRY PROGRAMME REVIEW	과 기 처
ROK-84-002	특허청 현대화 III MODERN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SYSTEM PHASE III	특 허 청
ROK-84-003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IMPROV PROD- FOOD & AGRICULTURE-NUCLEAR & RELATED TECH	농 진 청
ROK-84-004	전자통신연구소 지원 ASSISTANCE TO KETR	전 자 통 신 (연)
ROK-84-801	한국건설기술원 ASSIST- KOREAN INSTITUTE CONSTRUCTION TECHNOLOGY	한국건설기술원
ROK-85-001	공업부문조정관 II PROJECT MAN. COORDINATOR PROJECTS EXECUTED UNIDO	과 기 처
ROK-85-002	6차 계획 수립지원 ASSIST DEV PLAN(SIXTH FIVE YR ECON & SOC DEV PLAN)	경 제 기 획 원
ROK-85-003	중국 항주 우편서비스 연구 INT'L STUDY CYCLE POSTAL SERVICE RURAL-HANGZHOU-CHINA	체 신 부
ROK-85-004	관광 리조트개발지원 ASSISTANCE IN DEV/IMP OF TOURIST RESORTS	교 통 부
ROK-86-001	수요평가 TECHNICAL ASSISTANCE NEEDS ASSESSMENT	과 기 처
ROK-86-002	CAD분야지원 ESTABLISHMENT OF CAD SECTION WITHIN THE DIE & MOULDS	과 기 처
ROK-86-003	의약품시센터 SCREENING CENTER FOR PHARMACEUTICALS	한국화학연구원
ROK-86-004	석탄액화연구 DEVELOPMENT OF COAL LIQUEFACTION TECHNOLOGY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87-001	중소기업자동화 AUTOMATION OF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IES	중소기업진흥공단
ROK-87-002	해양연구소의 심해저 연구능력강화 STRENGTHENING KORDI'S DEEP SEA RESEARCH CAPABILITY	해양(연)
ROK-87-004	항공기술훈련센터 II CML AVIATION TRAINING CENTRE PHASE II	국제공항관리공단
ROK-87-005	교통정보관리체계의 개발 TRANSPORT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IMS)	교통개발(연)
ROK-87-006	유전자원보존관리 STRENGTHENING OF RDA'S PLANT GERMLASM RESOURCES	농진청
ROK-87-007	식물검역능력강화 STRENGTHENING OF PLANT QUARANTINE CAPABILITY ROK	국립식물연구소
ROK-87-008	과학기술분야교수훈련 TRAINING OF SCIENCE & ENGINEERING PROFESSORS	교육부
ROK-87-009	과학영재교육 EDUCATION OF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교육개발원 과학기술대학
ROK-87-010	과학기술정보서비스진흥 PROMO SCI & TECH INFO SERV & EST POPULAR SCI RES	K A I S T
ROK-87-011	저소득층여성훈련 TRAINING FOR LOW-INCOME WOMEN	여성개발원
ROK-87-012	산업재해장애자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개발 DEVELOP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INDUSTRIALLY-DISABLED WORKERS	근로복지공사
ROK-87-013	지역생태계 전국조사 NATIONAL SURVEY OF NATURAL ECOSYSTEMS	환경부
ROK-87-014	경제 및 산업개발 정책능력제고 STUDY ON ECONOMIC & INDUSTRIAL PLANNING	과기처
ROK-87-015	기술공여센터설립지원 CENTRE FOR PROMOTION OF TCDC	한국과학재단
ROK-87-016	국제특허연수원 설립지원 EST OF INT'L INTELLECTUAL PROP TRAIN INST(IPTI)	특허청
ROK-87-017	중소기업 전산화 기술개발 IMPROVED INDUSTRIAL MANAGEMENT COMPUTER SUPPORT	시스템공학(연)
ROK-87-018	미생물 세포은행 SUPP- MICROBIAL CELL BANK (KOR- COLLECT TYPE CUL)	생명공학(연)
ROK-87-019	진공기술센터 설립지원 ESTABLISHMENT OF VACUUM TECHNOLOGY CENTRE	기계(연)
ROK-87-020	신소재개발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기계(연)

부 록 1. UNDP 사업목록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87-021	에너지절약 및 대체 ENERGY CONSER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에너지기술(연)
ROK-87-022	과학기술정책센터지원 ASSIST CENTRE SCIENCE & TECHNOLOGY POLICY (CST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OK-87-024	UN 다자간 프로그램의 직접집행조정을 위한 정부능력강화 STREN GOV'T CAP DIREXE-COOR UN SYS MULTI PROG	과 기 처
ROK-87-025	종합기상정보체제개발 PROG DEV COMBINED METEOROLOGICAL INFO SYSTEM	기 상 청
ROK-87-026	사적부문 개발지원 SUPPORT TO PRIVATE SECTOR DEVELOPMENT	상 공 회 의 소
ROK-88-001	2000년대를 향한 동북아시아 기술-경제협력 TECHNO-ECON COOPER NEAST ASIA TOWARD THE YR 2000	서 울 대
ROK-88-W01	여성개발 A DEVELOPMENT PROJECT FOR WOMEN	제 주 사 회 복 지
ROK-89-001	컴퓨터를 이용한 물리탐사자료해석 COMPUTERIZED GEOPHYSICAL DATA INTERPRETATION	에너지자원(연)
ROK-89-002	유산균발효기술의 산업화 및 대 개도국전수 SUPPORT IND LACTIC FERM TECH CEREAL-DISSEMINATION	고 려 대
ROK-89-003	안정성연구센터지원 TOXICOLOGY RESEARCH CENTRE, PHASE II	화 학 (연)
ROK-89-004	핏치계 탄소섬유개발 및 산업응용 DEV & IND APPLICATION OF PITCH-BASED CARBON FIBRE	충 남 대
ROK-89-005	계측기기 서비스센터 설립지원(타당성 조사)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RUMENTS SERVICE CENTRE	표 준 (연)
ROK-89-006	사회주의경제개발에 관한 핵심복방인사초청(확산) STRENGTH COMPUTER BASED TRAIN HI-TECH SKILLS DEV	국제민간경제협의회
ROK-90-001	신기술 창업지원 PROGRAM FOR ESTABLISHMENT OF TECH BUSINESS INCUBATORS IN ROK	한 국 산 업 은행
ROK-90-002	교통부문에 있어서 연료소비와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연구 REDUCE ENERGY CONSUMP & AIR POLLUTION - TRANSPORT	교 통 개 발 (연)
ROK-90-004	건전한 노사관계연구 INTEGRATED PROG-PROMOTE SOUND INDUSTRIAL RELATIONS	한국노동연구원
ROK-90-006	경제개혁 및 개발정책 국제워크숍 INT'L WORKSHOP ECON REFORMS & DEV POLICIES -KOREA	과 기 처
ROK-90-007	UNDP 40주년 기념식 준비 PREPARATIONS FOR UNDP'S 40TH ANNIVERSARY IN ROK	UNDP-한국사무국
ROK-91-001	정부능력강화 STRENGTH GOV'T/UNDP CAPABILITES NAT'L EXECUTIONS	과 기 처

UNDP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91-002	물질실험평가 FEASIBILITY STUDY EST INT'L MATERIALS TEST & EVAL	U N I D O
ROK-92-001	정부능력강화 II STRENGTHENING OF GOV'T CAPABILITIES PHASE II	과 기 처
ROK-92-002	건전한 노사관계증진 INTEGRATED PROGRAM TO PROMOTE SOUND INDUSTRIAL RELATIONS-KOREA	노 동 연
ROK-92-003	동북아정치경제 심포지움 INT'L SYMPOSIUM- POLITICAL ECONOMY OF NORTHEAST ASIAN RIM	서 울 대
ROK-92-004	아국상품 대 UN기관 공급 INCREASED PROCURE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IDFC) PROJECT FOR ROK	무 역 진 흥 공 사
ROK-93-001	병해충종합관리 훈련 및 개발 INTEGRATED PEST MANAGEMENT DEVELOPMENT & TRAINING PROG	농 진 청
ROK-93-002	기술금융정보센터설립지원 ESTABLISHMENT OF TECHNOLOGY & FINANCING INFORMATION CENTRE (TFIC)	종합기 술금융(주)
ROK-93-003	첨단장비정비훈련 ACTUALISATION AND LIB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SES IN THE FIELD OF "THE MAINTENANCE OF HIGH-TECHNOLOGY EQUIPMENT"	교 통 개 발 (연)
ROK-93-004	전국여성회의 ANNUAL NATIONAL CONFERENCE ON WOMEN	여 성 개 발 원
ROK-93-005	과학기술정보유통진흥 PROMOTION- SCIENTIFIC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STIS)	연구개발정보센터
ROK-93-006	사무자동화 UNDP/MOST OFFICE AUTOMATION PLAN	과 기 처
ROK-93-007	중소기업국제경쟁력강화 ENHANCEMENT OF SM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K T B 컨 설 팅 (주)
ROK-93-009	개도국기술연수지원 TRAIN SELECT S&T FIELD BENEFIT ASIAN DEV COUNTRIES	국 제 협 력 단
ROK-93-010	두만강유역개발용역 STUDIES IN SUPPORT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OK-93-01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EMPLOYMENT PROMOTION FOR PEOPLE W/DISABILITIES	장애인고용촉진공단
ROK-93-012	과학기술정책수립 및 진행 UPGRADING S&T POLICY FORMULATION & IMPLEMENTATION CAPABILITY OF GOV'T	과 기 처
ROK-93-013	환경독성학적 위험성 평가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TOXICOLOGICAL RISK ASSESSMENT SYSTEM	화 학 (연)
ROK-93-014	수질 및 해양환경오염물질 WATER AND MARINE POLLUTION MONITORING	KIST생체대사연구센터
ROK-93-015	해양 및 수질오염 모니터링 WATER AND MARIN POLLUTION MONITORING	환경개발연구원

부 록 1. UNDP 사업목록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93-016	한국 환경정보망구성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NETWORK SYSTEM (KEINS)	KIST 환경연구센터
ROK-93-017	ECOPOLIS 모델 MODEL ECOPOLIS (GREEN CITY CONCEPT)	서울대
ROK-93-018	SDN 개념 증진 NGO 활동 NGO ACTIVITIES PROMOTING SDN CONCEPT	Y M C A
ROK-94-002	한국법체계의 양성평등 AGENDA FOR POLICYMAKERS AND WOMEN'S GROUPS TOWARD GENDER EQUALITY IN THE KOREAN LEGAL SYSTEM	이화여대
ROK-94-003	여성의 국제협력 증진 TRAINING PROG.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Y FOR PROFESSIONALS WOMEN	여성개발원
ROK-94-004	세계여성회의 준비 NGO 활동 SUPPORT NGO PREPARATORY ACTIVITIES FOR BEIJING WORLD CONFERENCE ON WOMEN	NGO 여성위원회
ROK-94-005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조직 활동 PROJECT FOR GROUP ACTIVITIES TO ENHANCE WOMEN'S PARTICIPATION	여성민우회
ROK-94-006	여성노조원 노동법 학습 LEGAL LITERACY TRAINING TRADE UNION WOMEN	한국노총
ROK-95-001	정부 및 UN/UNDP 간 협력 PROMOTING EFFECTIVE COLLABORATION -GOV'T & UN/UNDP	과기처
ROK-95-004	병해충 종합관리 훈련 및 개발 INTEGRATED PEST MANAGEMENT DEVELOPMENT AND TRAINING PROGRAMME	농진청
ROK-95-800	5차 CP 중간평가회의 준비 Mid-Term Review	과기처
ROK-96-001	TRADP 상업 및 투자은행에 관한 연구 STUDY COMMERCIAL & INVEST BANKING NEEDS IN TRED A	동아시아경제연구원
ROK-96-002	지역사회 지도자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조화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MES FOR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ENVIRONMENT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LINKAGE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ROK-96-003	철도전문인력육성 PROGRAMME OF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THE KOREAN RAILROAD SECTOR WITH EMPHASIS ON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PROMOTION OF WOMEN'S OPPORTUNITIES	철도전문대
ROK-96-004	재택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정신간호사범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NURSING PROGRAMME FOR REHABILITATION OF LONG-TERM PSYCHIATRIC PATIENTS	이화여대
ROK-96-005	건전한 노사관계 증진 PROGRAMME TO PROMOTE SOUN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노동(연)
ROK-96-006	인적자원 계정 개발 HUMAN RESOURCE ACCOUNTS PREPARATION	통계청
ROK-96-007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연구 DETAILED STUDY & PROPOSAL FOR ESSD IN NORTHERN KYUNGGI PROVINCE	서울대
ROK-96-008	병해충 종합관리 훈련 및 개발 INTEGRATED PEST MANAGEMENT TRAINING & DEV.	농진청

UNDP



대한민국과 유엔개발계획(UNDP)

UNDP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96-009	인간개발의 현황분석과 발전전략연구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ROK	보건사회연구원
ROK-96-010	빈곤대책의 성과와 개선방안연구 CURRENT-POVERTY ISSUES & COUNTER POLICIES IN ROK	보건사회연구원
ROK-97-001	빈곤연구 PROFILE OF POVERTY IN KOREA	과 기 부
ROK-97-002	음식물 내 환경오염원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L CONTAMINANTS IN DIETARY	식품의약품안전청
ROK-97-004	여성권한증진 GROUP ACTIVITIES TO PROMOTE GENDER EMPOWERMENT	한국여성민우회 (WOMENLINK)
ROK-97-008	노인방문요양 시범사업 MODEL SET-UP AND PILOT OPERATION OF HOME HELP SERVICE PROGRAMME FOR THE ELDERLY IN KOREA	한국노인복지회
ROK-97-010	과학기술정책수립 및 집행 UP GRADING OF S&T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PHASE II)	과 기 부
ROK-97-011	정부-UNDP간 협력 PROMOTING EFFECTIVE COLLABORATION BTW THE GOVERNMENT AND UN/UNDP	과 기 부
ROK-97-012	아시아국가를 위한 직업기술훈련 ADVANCED TVET PROGRAMME FOR THE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한국기술교육대학
ROK-98-001	두만강유역의 환경친화적 관광 ENVIRONMENTALLY SOUND TOURISM DEVELOPMENT IN THE TUMEN REGION: REALIZING THE POTENTIAL OF MT. PAEKUSAN/CHANGBAS HAN AREA	국 환 경 그 록
ROK-98-002	정보화시대 여성권익신장 EMPOWERING WOMEN AS FULL DEVELOPMENT PARTNERS IN THE INFORMATION AGE	여 성 정 보 원 (Femnet Korea)
ROK-98-003	한국여성의 인권연구 DEVELOPMENT OF STRATEGIES TO ADDRESS DE JURE AND DE FACTO HUMAN RIGHT STATUS OF KOREA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여 성 개 발 원
ROK-98-005	산림보호교육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MES ON TREES AND FORESTS	산 림 청
ROK-98-006	대호 간척지 내 농지와 농업지원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모델 AN ESSD MODEL OF THE RURAL FARMLAND AND AGRICULTURAL RESOURCES IN TAEHO AGRICULTURAL TIDELAND	서 울 대 학 교
ROK-98-007	TRAINAIR	한 국 공 항 공 단
ROK-99-002	하남환경박람회 국제회의 UNEP'S SUPPORT SERVICE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CREATING A 'GREEN CITY-HANAM': COLLABORATIVE PARTNERSHIP FOR '99 HANAM ENDEPO	하 남 시
ROK-99-003	하남에코시티개발 CREATING A 'GREEN CITY-HANAM': FORMULATING INTEGRATED GUIDELINES AND FRAMEWORK FOR ECO-CITY	하 남 시
ROK-00-002	아태지역 개도국 직업훈련 ADVANCED TVET PROGRAMM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한국기술교육대학
ROK-00-003	사이버공간의 여성참여 SITUATION ANALYSIS OF WOMEN'S PARTICIPATION IN CYBER SPACE	이 화 여 대 / 한국여성연구원

부 록 1. UNDP 사업목록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01-001	개도국 내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CAPACITY-BUILDING FOR CREATION OF LARGE-LINKED DATABASES FOR THE MEDICAL EVALUATION OF VACCINE SAFETY IN DEVELOPING COUNTRIES	국제백신연구소
ROK-01-002	동북아지역협력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PPRAISALS AND PROSPECTS	부산개발연구원
ROK/02/001	한-UNDP 공동협력촉진사업 PROMOTING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T AND UNDP	교육과학기술부
ROK/02/002	과학기술정책경험 개도국 전수 및 과학기술집행능력제고사업 DISSEMINATION AND PROMOTION OF KOREAN EXPERIENCES IN S&T	교육과학기술부
ROK/03/004	친환경안전농산물사업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FRAMEWORK IN PURSUIT OF FOOD SAFETY, QUAL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농촌진흥청
ROK/03/G31	습지보존사업 CONSERVATION OF GLOBALLY SIGNIFICANT WETLANDS IN THE REPUBLIC OF KOREA	환경부
ROK/04/001	두만강유역 토사유실방지사업 DEVELOPMENT OF SOIL LOSS PROTECTION PROGRAM IN THE TUMEN RIVER BASIN	한국수자원연구원
ROK/04/002	팜산업 부산물로부터 생물전환 기술개발사업 BIOCONVERSION OF BY-PRODUCTS FROM PALM INDUSTRY FOR PRODUCTION OF VALUE ADDED BIOMATERIALS	한국생명공학연구원
ROK/05/001	서귀포시 SCP 생태도시 시범사업 NATIONAL PROGRAMME FOR ECOCITY NETWORK IN KOREA - PILOTING THE SCPECOCTY APPROACH IN SEGWIPOCTY	서귀포시
ROK/05/002	아태지역 치료방사선 품질보증사업 ASIA AND PACIFIC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IN RADIOTHERAPY	식품의약품청
ROK/05/003	서사모아 연안지질조사 사업 COASTAL GEOLOGICAL MAPPING OF SAVAI'I ISLAND, SAMOA	한국지질자원연구원
ROK/05/004	동남아국가와 문화관광 개발 및 교류촉진사업 PROMOTING CULTURAL & TOURISM DEVELOPMENT & EXCHANGE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한국문화관광연구원
ROK/05/005	한-몽골 건강증진사업 MODEL SET-UP FOR SCHOOL HEALTH MANAGEMENT IN MONGOLIA	한국건강관리협회
ROK/06/001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쓰나미 피해 복구지원 MITIGATION OF COASTAL IMPACT OF NATURAL DISASTERS LIKE TSUNAMI, USING NUCLEAR OR ISOTOPE-BASED TECHNIQUES (POST-TSUNAMI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아태원자력협정사무국
ROK/06/003	제 4차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SUPPORT TO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 (ICAPP)	ICAPP 사무국
ROK/06/004	아시아저개발국 문화, 관광정보디지털화 지원사업 ESTABLISHMENT OF WEBSITES FOR CULTURE AND TOURISM INFORMATION VIETNAM, CAMBODIA AND LAOS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ROK/06/007	강원도생태도시 모형개발 및 국제훈련센터설립, 운영사업 NATIONAL PROGRAMME FOR ECOCITY NETWORK IN KOREA-PILOTING THE SCPECOCTY APPROACH IN GANGWON PROVINCE AT THE REGIONAL LEVEL-	강원도청
ROK/06/008	동북아 국가간 물류표준화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LOGISTICS SYSTEMS IN NORTHEAST ASIA	해양수산개발원
ROK/07/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활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 MICROCREDIT FOR POOR HOUSEHOLDS OF MIGRANTS IN KOREA	사회연대은행



사업번호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ROK/07/002	일자리창출 및 정책대응연구사업 LABOUR POLICY OP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IN RESPONSE TO GLOBALIZATION	한국노동연구원
ROK/07/003	Global Compact 한국네트워크 FACILITATING ESTABLISHMENT OF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AND STRENGTHENING ITS CAPACITY	외교통상부
ROK/07/004	베트남 과기정책수립 지원사업 TECHNICAL ASSISTANCE FOR 5-YEAR S&T PLAN IN VIETNAM (2011-20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OK/07/005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사업 MAINSTREAMING GENDER PERSPECTIVE IN ODA POLICIES AND PROGRAMMES - A STRATEGY FOR ACHIEVING MDGS	한국여성개발원
ROK/07/006	국제회의를 통한 글로벌 의제촉진 PROMOTING GLOBAL AGENDA THROUGH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외교통상부
ROK/07/007	캄보디아청소년 에이즈 예방사업 KOREA-CAMBODIA YOUTH PARTNERSHIP FOR HIV/AIDS PREVENTION	한국에이즈퇴치연맹
ROK/07/008	성인지 예산교육 매뉴얼 개발 CAPACITY BUILDING FOR IMPLEMENTING GENDER RESPONSIVE BUDGET IN KOREA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ROK/07/009	한-몽골 건강증진 사업 MODEL SET-UP FOR SCHOOL HEALTHMANAGEMENT IN MONGOLIA (2ND PHASE)	한국건강관리협회
ROK/07/010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의 해양과학기술협력 시범 MARINE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ROK AND LATIN AMERICA REGION	한국해양연구원
ROK/08/001	튀니지 과학기술정책수립 지원사업 TECHNICAL ASSISTANCE FOR S&T POLICY - MAKING IN THE REPUBLIC OF TUNISIA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OK/08/003	개도국을 위한 기업가 정신 개발 및 훈련 EDUCATION OF ENTREPRENEURSHIP FOR DEVELOPING COUNTRIES AS THEIR DETONATORS - DEVELOPMENT OF GEEP	한동대
ROK/08/004	친환경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아시아지역 여성의 경제적 역량증진사업 ECONOMIC EMPOWERMENT OF RURAL WOMEN IN ASIA THROUGH GREEN CO-OP	숙명여대 / 아태여성정보연구원
ROK/08/005	아태지역 연안지질 재해 저감연구 GEOHAZARD ASSESSMENT IN ASIA AND SOUTH PACIFIC COASTS (GEOCOAST)	지질자원연구원
ROK/08/006	고도난청자 인공와우 시술 및 재활훈련 REHABILITATION FOR THE SEVERE HEARING-IMPAIRED IN INDONESIA	경동대학교
ROK/09/001	태평양지역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OF PACIFIC ISLANDS EDUCATORS FOR CIVIL EDUCATION TOWARDS A CULTURE OF PEACE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아해교육원 (APCEU)
ROK/09/002	MDGs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교사훈련가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OF TEACHER TRAINERS IN ASIA-PACIFIC FOR THE ACHIEVEMENT OF MDGS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아해교육원 (APCEU)
ROK/09/003	아태지역 유네스코협동학교 ESD & MDGs 우수교육사례발굴/지원 ASPNET GOOD PRACTICE DEVELOPMENT PROJECT IN ACHIEVING MDGS THROUGH ESD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록 2. 역대 UNDP 주한대표부 대표 명단

성 명	국 적	근 무 기 간
Mr. W. Roy Lucas	뉴질랜드	1963/ 1 ~ 1967/12
Mr. Hans W. Kamberg	독 일	1968/ 1 ~ 1971/12
Mr. Woodrow Lloyd	캐 나 다	1971/ 1 (1개월)
Mr. H. Donald McInnis	미 국	1971/ 2 ~ 1974/12
Mr. Henry L. Maggs	캐 나 다	1975/ 1 ~ 1980/12
Mr. Berenado Vunibobo	피 지	1981/10 ~ 1986/ 2
Mr. Nemmara S. Subbaraman	인 도	1986/ 3 ~ 1989/ 7
Mr. Jacob Guijt	네덜란드	1989/ 8 ~ 1994/ 9
Mr. Kyaw Lwin Hla	미 안 마	1994/ 9 ~ 1997/ 3
Mr. Yoon Yul Kim (대행)	한 국	1997/ 3 ~ 1997/10
Mr. Somsey Norindr	프 랑 스	1997/11 ~ 2001/ 7
Ms. Anne-Isabelle Degryse-Blateau	프 랑 스	2001/ 8 ~ 2005/ 5
Mr. Zhe Yang	중 국	2005/12 ~ 2009/12